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복합철서를 만나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목 차

답사일정표			2
인조(仁祖)를 위한 변호	①	이호준	4
_자금성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원명원	②	류다정	27
_원명원			
청명상하도의 국제정치학	③	주연정	48
_중국국가박물관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	④	손상용	71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서태후와 청일전쟁의 패전책임	⑤	이지은	90
_이화원			
간서치의 세상읽기	⑥	이새라	106
_유리창			
마오의 스탈린의 만남	⑦	김호인	121
_마오쩌둥 기념당			
거울과 망치, 중국현대미술	⑧	나태웅	147
_798 예술구			

답사일정표

7 월 3 일(화)

- 08:20 인천공항 출국
- 09:40 베이징 도착
- 02:30 ~ 13:30 점심식사
- 15:00 ~ 16:30 자금성
- 17:30 ~ 19:00 원명원

7 월 4 일(수)

- 09:00 ~ 11:00 국가박물관
- 11:00 ~ 12:00 점심식사
- 13:30 ~ 15:30 이화원
- 16:00 ~ 18:00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 19:00 ~ 20:00 유리창

7 월 5 일(목)

- 08:00 ~ 10:00 마오쩌둥 기념당
- 11:00 ~ 12:00 점심식사
- 12:30 ~ 14:30 798 예술구
- 17:10 베이징 출국
- 20:10 인천공항 귀국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인조(仁祖)를 위한 변호: 명청(明清) 교체기 인조의 대중국 외교 _자금성

이호준

국방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답사를 위해 도착한 베이징의 7 월 날씨는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일기예보 상으로 37~38 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공항에서의 강화된 보안검색과 베이징 시내에서의 교통정체는 2 박 3 일 간의 베이징 답사가 결코 쉽지만은 아닐 것임을 예감하는 듯 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휘귀(火鍋) 음식점을 방문하여 북경식 휘귀를 맛본 후 천안문 광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휘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귀의 유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나라 때부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먹기 시작하였다는

설명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특히 사천(四川) 지방에서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천의 대표 요리 중 하나로 분류가 되며, 오늘날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중국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 북경식 휘귀

식사를 마친 우리는 본격적인 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성(紫禁城)이 중국의 정치 중심인 중난하이(中南海)와 맞닿아 있는 만큼 자금성 주변으로 가는 길의 보안 검색은 엄격했습니다. 차량 테러의 위협 때문에 천안문 광장 주변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성과 떨어진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걸어가는 와중에도 몇 번의 검문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국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천안문(天安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문은 명(明)과 청(淸)나라 시기 황성의 정문으로 명나라 영락 15년(1417)에 공사를 시작하여 영락 18년(1420)에 준공된 문으로 명나라 시기에는 승천문(承天門)으로 불렸습니다. 명나라 이래로 이 문은 황제가 출입하거나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출입은 지금은 헐려서 없어진 동·서 장안문(東·西長安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장안문은 황족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관료들은 주로 서장안문을 통해 자금성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서장안문에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 천안문 앞에서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1623년 8월 3일, 북경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서장안문 앞에는 새벽부터 이경전(李慶全)을 비롯한 조선의 사신단이 명나라의 각료들이 입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명나라의 각료들이 입궐하기 시작하자 사신단은 무릎을 꿇고 인조(仁祖)를 조속히 책봉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문(呈文)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참이 지난 후에야 멀리서 지금의 총리 격인 섭향고(葉向高)가 입궐하는 모습이 사신단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사신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섭향고는 인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등극하였음을 지적하며 “신중한 조사” 후에 황제에게 승인을 주청하겠다고 사신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인조 책봉을 위한 과정은 피말리게 진행되어 조선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 절차를 완료하는 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기술하면서 당시 후금과의 대결 관계에 있던 명나라가 조선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더욱 압박하기 위해 책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은 이러한 명의 의도에 말려들어 광해군대에 유지해오던 중립외교를 파탄 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영춘 2011, 135-138). 따라서 우리 역사에서 인조는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해인 명나라에 정성으로 사대(事大)하며 뜨는 해인 후금에게는 강경하게 일관했다가 정묘·병자호란의 치욕을 맞본 무능력한 군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한명기 2013, 357-364).

얼핏 듣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약소국의 비애를 떠올리기도 하고 무능력한 국가 지도자를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인조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인식의 대표격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조가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영특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스스로 주도자가 되어 반정을 조직하고 또 그것을 성공시킬 정도로 치밀한 성격을 가진 그가 어째서 재위 기간 중에는 현실감각을 결여한 채로 무능력으로 점철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명칭 교체기 인조 시대의 대중국 외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인조를 변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역사적 사료를 법전으로 삼아 당시의 진실을 밝혀 보고 그를 한번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당시의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권력

이 시기 조선의 대중국 외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동아시아를 관통했던 국제질서의 작동원리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은 권력(權力, power)인데, 이것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개념은 아닙니다. 서구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학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권력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모겐소 2013, 132)”으로 정의했는데, 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요소(權)와 군사적인 요소(力)가 모두 필요합니다.

권력에 대한 모겐소의 언급처럼 국제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겐소가 언급한 권력의 정치적 요소와 군사적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이 정치 행위를 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생겨난 개념으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 방식은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근대 이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권력은 근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방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는 일찍부터 예치(禮治)로 표현되는 독특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대 이후 서구의 국제질서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이익 배분에 중점을 둔 질서였다면,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예(禮)로 대표되는 정치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군사력과는 다르게 예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그 작동 방식이 굉장히 복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력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서구와는 다르게

복잡한 양상을 보인 것은 바로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권력의 이러한 속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가지는 이러한 독특한 특성은 명청 교체기에도 예외 없이 작동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면 예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그 절정에 달한 상태였으며, 이는 당연히 조선과 명·후금(後金)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질서의 권력이 변동하는 가운데 사대와 자소(字小)를 기반으로 200 여년 이나 넘는 관계를 지속해온 명과의 의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할 가능성이 보이는 후금을 따를 것이냐. 인조가 즉위할 당시 조선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인조의 대중국 외교

이 당시 인조는 정말로 국제적인 감각이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당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기록을 담고 있는 사료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선 시대 역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록을 살펴보면 인조는 즉위 초부터 후금의 국력이 성장일로에 있으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후금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적(후금)의 동태로 보아 조만간 필시 한 번 쳐들어 올 것이다. 방어할 방법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탐에 능하지 못하는데, 만약 미리 적병의 다과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 인조실록 1년 3월 18일 -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인조는 다가올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정탐에 취약한 조선의 약점 역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조실록을 살펴보면 인조는 즉위 이후부터 서북 지역의 방어에 대해 2~3 일에 한번 꼴로 대신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조는 즉위 직후부터 서북 지역을 방어할 책임자로 장만을 원수로, 부원수로는 이괄을 임명하였으며,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직 임진왜란의 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군사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비록 왜란 이후 군제 개혁을 통해 점차적으로 예전의 수준을 회복되게 되지만, 당시 조선의 정예 병력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만여 명의 조선군이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 후금군 정벌에 나섰다가 사르후(薩爾滸) 전투(1619)에서 후금군에게 대패하여 군사력에 큰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조선군의 숫자는 4,000 여 명이었으며, 인조 즉위 이후에도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후금군에게 억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조가 즉위 직후부터 서북 지역에 대한 방어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군사력의 대폭적인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군사력의 확충도 시급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군량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경작 가능한 토지는 대략 113만결 정도였는데, 전란을 겪으면서 25% 정도인 29만결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인조 1년(1623) 4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호조(戶曹)에서 인조에게 조정의 1년 경비가 11만석이지만 수납한 것은 10만석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조는 “양식을 마련하는 일이 군사를 뽑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하며 군량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인조실록에서는 군량 부족에 관한 논의가 곳곳에 등장하는 등 군량 부족은 정묘·병자호란 직전까지 조선 조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렇듯 인조 즉위 당시의 조선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명을 도와 후금을 정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반정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광해군이 명에 대한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어기고 후금과 내통하였다는 것이었지만, 인조의 입장에서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국가의 안위를 내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한 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후금의 침략을 방어하거나, 후금의 힘을 인정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음과 동시에 후금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후금의 군사력에 굴복하는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으며, 그렇다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철회하고 후금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후금의 힘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인조는 명에 대해 지속적인 사대를 유지하면서 후금과의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중략 … 저 적(후금)이 흑시라도 우리 국경을 넘어와 말을 붙이면 의당 ‘두 나라는 일찍이 원한이 없었다. 너희나 우리나라 국경을 서로 넘어와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정해진 영토를 지키는 것이 가하다. … 중략 …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 국경에 주둔하는 것이나 요동 백성이 국경을 넘어와 중국 장수에게 귀순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가 지시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안 된다.’ … 중략 … 하니, 상이 따랐다.”

- 인조실록 1년 3월 27일 -

인조는 후금에 대해 유화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조선 왕조가 건국 이후부터 여진족을 대하던 방식인 기미(羈縻)로 돌아간 것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와는 사대 관계를 여진,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기초로 외교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진에 대해서는 정벌과 기미를 적절히 활용하여 북방

국경에서의 안정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인조가 후금에 취했던 정책을 기미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기미라는 용어가 말의 굴레(羈)와 소의 고삐(靡)를 합친 것으로서 소나 말의 고삐를 잡듯이 이적(夷狄)을 통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김한규, 2005, 118)에서 볼 때 기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미의 대상보다 우월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은 여진보다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미를 통해 여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대에 이르러 후금의 국력이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점차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여진의 힘이 조선보다 약했기 때문에 기미를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힘의 균형이 뒤바뀐 이 시기에 후금에 대한 조선의 기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조가 후금에 취했던 정책을 기미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조선 조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기미라고 불렀다는 점과 이 당시의 외교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아직까지 학계에서 통일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의 대 후금 외교를 살펴보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광해군은 그 당시 국제정세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 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현재의 중립외교와도 비슷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시도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실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복원할 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성리학에 기반한 유교 질서였습니다.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구분이 뚜렷하고 국가 간의 위계가 비교적 명확한 체제였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명(중화)과 후금(이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왕조의 정통성과 중화질서의 정당성을 모두 부정하려는 이단적인 행위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10년(1681) 6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명의 계속된 파병 요구를 광해군이 거절하자 비변사 당상들은 “중국 조정에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성상(광해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낫다”라고 언급하며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고 명에 대한 사대의 의리를 지켜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인조 14년(1636) 9월 22일의 기사는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리 조빈이 상소하기를,

“국가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근본이 있습니다. … 중략 … 아, 우리 왕조가 왕업을 일으킨 것도 근본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난신의 모략을 듣고서 홍삭(洪武)의 정삭(正朔)을 폐하고 북원(北元)의 연호를 사용하

면서, 병기를 들어 반란하여 위화도에 진군하였으니, 당시 생민의 화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조께서 의를 들어 회군하여 크게 동방 사민의 소망을 위로하였으므로, 천심과 인심이 함께 돌아와 … 중략 … 그러므로 신은, 의리를 들어 회군하여 존주(尊周)의 의리를 밝힌 것은 우리 나라가 왕업을 일으킨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손이 이 도리를 배반하면 반드시 천의(天意)의 민심을 거슬러서 국가를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인조실록 14년 9월 22일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지속했다 하더라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왕조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았으며, 이는 곧 반정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 났습니다.

또한 명나라가 과연 후금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1619년 명나라가 사르후에서 후금군에게 대패하기는 하였지만 명나라는 그 정도의 패배로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626년에 후금은 영원성 전투에서 원숭환(袁崇煥)이 이끄는 명군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누르하치(奴爾哈赤)마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록 1641 년에 들어서면 산해관(山海關) 외곽 지역이 모조리 홍타이지(皇太極)에게 함락 당하게 되지만, 1644 년 명나라가 이자성(李自成)의 난으로 인해 멸망한 후 오삼계(吳三桂)가 산해관의 문을 홍타이지에게 열어주기 전까지 후금은 결코 자력으로 산해관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가 후금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명나라가 어쩔 수 없었던 조선의 현실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재조지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신한 조선을 이해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을 능가하는 무서운 보복이 뒤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조일수 2017, 364).

인조 역시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조가 명나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대하면서 후금에 기미를 한 것을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력 관계 속에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후금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 후금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조선이 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조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후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음의 기사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랍(烏拉)의 패륜(貝勒)인 포점태(布占泰)가 조선을 침공(1612)하였을 때, 황제(누르하치)와 포점태는 친척 간이어서 그들의 진군을 중지하도록 늑유(勒諭)하였건만 조선에서는 역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또한

황제(누르하치)가 붕어(崩御)하였는데도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하지 않았다(1626).

- 청사고(淸史稿) 조선열전 -

사실 누르하치는 건국 초기부터 조선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를 오랫동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만 회유할 수 있다면 천명(天命)이 자신에게 있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후방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선 조정에 지속적으로 서신을 보내 조선을 회유하는 한편 명나라가 조선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조선을 모욕하면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이간질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나 홍타이지가 조선을 몹시 미워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지요(천제센 2015, 314-315).

그 외에도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1621년 이후부터 가도(槓島)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은 조선으로서나 후금으로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가도에 주둔하면서 후금을 견제하는 척하며 이를 빌미로 조선 조정에 군량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압록강변을 넘어 후금의 경계를 침략하면서 누르하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누르하치는 조선에 서신을 보내 모문룡에 대한 군량 공급을 중단하고 그를 잡아 보내면 강홍립(姜弘立)을 비롯하여 사르후 전투

때 포로로 붙잡힌 조선 관병 모두를 석방하겠다고 보증합니다. 조선으로는 귀가 솔깃해질 만한 조건이었지만 인조는 후금의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또한 조선의 경계로 도망간 한족(漢族)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금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한족의 거주지까지 침범하게 되자 포로가 된 한족은 지속적으로 후금의 경계를 넘어 조선으로 도주하였습니다. 1621 년이 되면 도망자의 수는 무려 10 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진족은 포로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민의 도주는 재산을 잃는 것과 같았으므로 갖은 방법을 강구해 도망자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누르하치 역시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 차례 인조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으로 도주한 한족을 받아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명나라의 주민을 마음대로 넘겨줄 뜻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후금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외교와 명분을 통해 조선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면 결국 남은 것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626 년 누르하치가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 칸(汗)의 자리에 오른 홍타이지는 명나라와의 전쟁을 재개하기 전에 먼저 조선을 응징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정묘 · 병자호란과 새로운 평화

1627년 1월 후금의 군대는 압록강을 넘어 한양으로 곧바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조선 조정으로서는 후금의 침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에서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루한 협상 끝에 후금과 ‘형제의 의(兄弟之誼)’를 맺는 선에서 화친이 이루어집니다.

후금이 다른 군사 거점들은 점령하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한양으로 신속하게 진격해 들어간 점이나, 먼저 화친을 제안한 점에서 볼 때 정벌을 결정하기에 앞서 군사력 만으로는 조선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홍타이지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끝까지 고수하는 조선을 보며 자신들이 지금까지 정복해왔던 만주의 다른 부족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군사력을 통해 조선을 정벌하더라도 그들이 후금의 통치에 고분고분하게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타이지의 이러한 속내는 당시 후금군을 따라왔던 강홍립이 인조를 접견하면서 했던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강홍립이 말하기를

“저 적(후금)은 언제나 황조(皇朝)를 신하로 섬기는 것을 불가하게 여겼는데, 국서를 본 뒤부터는 말하기를 ‘조선이 2 백년 동안 황조를 신하로 섬겼다는 말이 극히 신의가 있으니, 이들과 우호를 통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신의 숙부가 볼모로 있기 때문에 신을 보내어 화친을 결정하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 인조실록 5년 2월 10일 -

정묘호란 당시 후금의 행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선을 군사력만으로 굴복 시킬 수 없다면 먼저 형제의 관계를 맺은 뒤 서서히 회유하면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든지, 영토의 일부를 후금에 병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아마도 조선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조선이 후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으로서는 후금의 군사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속까지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명나라 연호의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인조는 “대의에 있어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결코 따를 수 없지만, 지금 억지로 다투면서 국가를 위망하게 만드는 일을 자초할 것은 없다(인조실록 5년 2월 22일)” 라고 하며 후금에 보낼 국서에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우리가 신하로 2백여 년 동안 황조(明)를 섬겼으므로 받은 은혜가 깊고도 중하여 의리 상 저버릴 수 없으니 이를 양해해달라(인조실록 5년 2월 23일)” 고 명시 하는 등 마지막까지

조선의 의도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인조의 이러한 노력은 후금에게도 받아들여져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과 후금은 큰 충돌 없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쇠락과 후금의 성장이라는 상황이 존재하는 한 양국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상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1634년 홍타이지는 차하르(察合爾) 몽골의 립단 칸(林丹 汗)을 멸망시킴으로써 사실상 몽골 전역을 평정하였습니다. 곧이어 립단 칸의 잔여 세력들이 원(元)나라의 옥새를 가지고 투항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옥새를 손에 넣은 홍타이지는 천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타이지의 의중을 확인한 대신들은 그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때 홍타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계(天聰) 9년(1635) 차하르(察合爾)의 립단 칸(林丹 汗)을 평정하고 원나라의 국새를 얻었다. 팔화석(八和碩)의 패륵과 외번(外藩)인 몽골(蒙古)의 49 패륵이 표문을 올려 존호(尊號)를 올리겠다고 주청하였다.

황제(홍타이지)가,

“조선은 형제국이므로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 청사고(淸史稿) 조선열전 천계 9년-

홍타이지로서는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였고 또 원나라의 옥새까지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들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모겐소의 언급이 보여 주듯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법입니다. 누르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 황제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홍타이지가 이를 모를 리는 없었겠죠.



▲ 자금성 태화전 앞에서 사랑방 학우들과 함께

1636년 2월 24일 마침내 용골대(龍骨臺) 일행이 인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용골대 일행은 인조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특이한 문서를 하나 바칩니다. 바로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를 요청하는 팔화석과 몽골의 패륜들의 글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신하의 처지로 다른 나라 임금에게 글을 보내는 규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용골대가 들고 온 문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용골대는 크게 화를 내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조가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을 거부하였으니 당연히 조선에는 곧 후금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후금과의 대결에 대비해 전쟁에 대비하라는 사신의 공문마저 용골대 일행에게 탈취 당하는 사건마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후금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곧이어 홍타이지는 화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홍타이지는 결국 4월 11일 심양(瀋陽)에서 국호를 청(淸)으로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조선의 나덕헌(羅德憲)과 이확(李廓)은 춘신사(春信使)와 회답사(回答使)의 자격으로 홍타이지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즉위식이 진행되는 내내 홍타이지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사람은 홍타이지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조선과는 형제국이지 상국(上國)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주와 몽골인들, 조선이 상국으로 섬기는 명나라 출신 신료들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식장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한명기 2013, 48).

물론 두 사람은 청의 관원들에게 심하게 얻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홍타이지에게 절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나만갑의 <병자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고 식장에 있던 한족 신료들 가운데는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한명기 2013, 54). 조선 사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홍타이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군대를 파견해 조선을 정벌한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홍타이지의 즉위 소식은 곧 조선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이로서 조선과 청나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는 없듯이 조선으로서는 후금의 건원칭제(建元稱制)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조는 청나라와의 타협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타이지의 즉위 소식이 전해진 6 월경, 인조는 청나라에 보낼 국서에 대해 논의하는 경연장에서 ‘대청국 황제’라는 명칭 대신 ‘청국 한(淸國 汗)’이라는 명칭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청나라라는 현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를 용인할 수도 없으니, 그 속에서 나름의 살 길을 찾자는 의도였지요. 하지만 이미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임박한 청나라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637 년 12 월 9 일, 청나라는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2 월 13 일에는 안주(安州)를 거쳐 한양으로 곧장 진격합니다. 청나라의 두 번째 침입에 직면한 조선은 또 다시 청나라의 군사력에 굴복하고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홍타이지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과 ‘군신의 예(君臣之義)’를 맺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청나라가 지금까지 정복했던 모든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었다는 점에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대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며 자신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을 보고 군사력만으로는 이 나라를 영원히 복종시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시기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보여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당시 인조가 취했던 외교 정책을 권력의 속성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나가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의 답사는 자금성을 지나 후문인 신무문(神武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당시의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고려하였을 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인조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방침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칭 교체기 인조의 대 중국 외교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군주가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치욕을 겪었고 또 청나라의 횡포에 시달린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인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지는 해인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며 뜨는
해인 청나라로부터 조선의 생존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그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강희제(康熙帝,
1661~1772)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며,
이후 25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국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역사의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그것을 온 몸으로 막아내려다
처절하게 부서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강대국의 국제 정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기민하게 파악하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생존과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영리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오랑캐의 발 밑에 무릎을
꿇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켜내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또 이를 통해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신상담(臥薪嘗膽), 권토중래(捲土重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지 치욕의 주인공이 되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시대가 요구할 때 누군가는 치욕의 오명을 써야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지 않고 현재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려 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인조가 살았던 시대로 되돌아 간다면, 그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그를 변호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는 동안 우리를 태워갈 버스가 도착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자금성에서의 아쉬운 여정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인 원명원(圓明園)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연 다음 답사지인 원명원에서는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고문헌

- 김한규. 2005.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 서울: 소나무.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공식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중국정사 조선전.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
- 조일수. 2017. “인조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2017.11.
- 계승범. 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서울: 푸른역사.
- 이영춘. 2011. “인조반정 후에 파견된 책봉주청사의 기록과 외교활동,” 〈조선시대사학보〉, 2011.11.
- 최정운. 2009. “서구 권력의 도입.”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하영선 외 지음. 서울: 창비.
- 천제센. 2015. 《누르하치: 청 제국의 건설자》. 홍순도 역. 서울: 돌베개
- 한명기. 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 서울: 푸른역사.
- 한스 J. 모겐소. 2013. 《국가간의 정치》. 이호재 · 엄태암 역. 서울: 김영사.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원명원 -원명원 2차방화사건의 원인 규명 _베이징 원명원

류다정

서울대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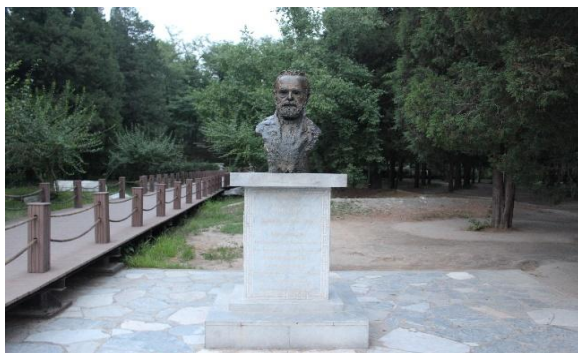
들어가며

사랑방 10 기의 중국 답사 첫째 날인 2018 년 7 월 3 일,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원래 둘째 날 예정이었던 원명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원명원의 폐허속으로 들어가며 150 여년전 활활 타올랐던 원명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명원의 폐허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처음 본 것은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였습니다. 그가 1861 년 영불연합군의 만행에 대해 프랑스 버틀러 상위에게 영불연합군의 만행을 비판하며 보낸 서신 발췌문이 원명원의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강도가 원명원에 침입했습니다. 한 강도는 살살이 약탈을 했고, 다른 강도는 불을 지폈습니다. 마치 승리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원명원의 대규모 약탈이 실시되었고, 도난 당한 물품들이 두 승리자에게 동등하게 나뉘어 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긴의 이름과 연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긴의 이름은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케 했습니다.¹ 일전에 파르테논 신전에 했던 것과 같이 원명원을 파괴했습니다, 그저 더 철저히, 더 예쁘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의 모든 대성당의 보물들을 합해도 동쪽의 위치한 저 위대하고 웅장한 박물관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술품들뿐만 아니라 많은 금은보화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입니다! 큰 수확입니다! 주머니가 가득 찬 승자 두 명은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유럽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문명인입니다. 중국사람들은 우리에게 야만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문명인이 야만인에게 한 짓입니다.

원명원의 파괴는 당시 중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위고의 편지에서는 ‘원명원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환상이, 왜 엘긴에 의해서 불타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명 맞은편에 있던 프랑스 작가 위고의 흉상

1856년 애로호 사건¹을 도화선으로 촉발된 제 2 차 아편전쟁은, 1860년 원명원의 파괴와 동서양이 『톈진조약』,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불미러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천하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2 차 아편전쟁은 중국에게 국제법, 국제외교질서, 그리고 새로운 문명관을 시사해 주면서 서양의 문명표준이 범

¹ 1856년 10월, 광저우 앞 주강(珠江)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인 소유의 영국 해적선 애로호에 청나라 관리가 올라가, 청나라 관원에 의하여 승무원 전원이 체포되고 영국 국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애로호는 중국인 소유였으며, 해적선으로 영국 국기를 달았고, 중국인 선원 13명과 영국인 선장 한 명이 있었다. 그러나 체포 당시 선장은 배 안에 없었고 중국인 선원 13명만 체포되었다.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선을 단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배상금과 사과문을 내라고 하였으나 당시의 양광총독(兩廣總督) 엽명침(葉名琛)은 사건 당시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지도 않았고 중국인 소유의 배이므로 영국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세계적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상징하게 되었 습니다. 중국은 패전과 동시에 국제법 번역작업을 시작하고, 총리아문(외교부)를 설립하고, 양우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수 천년간 유지해 왔던 ‘예’로 기반한 국제질서를 서서히 폐기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2 차 아편전쟁은 중화질서와 서양질서의 만남 속에서 이뤄진 전쟁입니다. 두 질서의 충돌은 한 질서의 몰락과, 다른 질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질서는 원명원의 타오름과 동시에 역사 속에서 그 발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원명원은 황제가 정사를 돌보고 생활을 하는 장소로, 출입이 매우 제한적이고, 원내의 규율 또한 엄격히 지켜졌습니다(왕룡주 2015). 그런 원명원이 1860년 10월 18일 영국 전권 특사 로드 엘킨의 명령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방화는 매우 야만적인 행위로, 국제법상으로도 문화재에 대한 방화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소위 문명인이 와서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Erick 2015). 당시 방화 주범인 로드 엘킨은 왜 원명원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갖고 저는 『圓明園：清代檔案史料』, 『籌辦夷務始末·咸丰朝 (第7册)』, 『清朝柔遠記』 그리고, 입수하게 된 The Times 신문 자료와, 엘킨과 파크스의 편지와 일기의 내용을 통해, 1860년 10월 18일 엘킨이 원명원에 방화를 명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 2 차 아편전쟁 사건 경과

원명원이 파괴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사건 경과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2 차 아편전쟁은 1858 년 『텐진조약』의 체결까지의 단계와 그 후 1860 년 『베이징조약』의 체결까지, 두 단계에 거쳐서 일어났습니다. 『텐진조약』을 작성하고, 비준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조는 비준을 언제 할 것인지, 영불미러는 어디에서 조약문 교환을 할 것인지, 외교단은 어느 노선으로 베이징에 들어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청조와 영불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당시 주 베이징 사절단이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인질이 고문당하고 사망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59 년 5 월, 흠차대신(钦差大臣) 승격임심은 영국군에게 조약문을 교환하고 싶을 경우 다구 포대가 아닌 베이탕으로 올 것을 요청했으나, 영국은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영국군은 결국 다구 포대로 침입했고, 승격임심의 대비책으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패전소식이 영국에 알려지자, 국내 여론과 의회에서는 중국의 총책임자인 옐킨 공사의 무능함을 질책하기 시작했고, 옐킨은 이런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승리로 보였으나, 다구에서의 승리가 결국 원명원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구의 참패가 오히려 옐킨의 강경 노선을 지지해준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왕룡주 2015). 이로써 옐킨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책을 택했고, 외교적인

협상책보다는 군사적인 압박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王天根 2014).

그 해 8월, 런던은 엘긴을 파견해 21일 다구를 점령하고, 곧 바로 북상하여 26일 텐진을 점령했습니다. 9월, 통저우 부근 바리차오에서 전투를 벌여, 중국은 현대화된 영불연합군의 군사력 앞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9월 25일 연합군은 체포된 포로를 석방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공친왕이 이에 응하지 않자 영불 연합군은 10월 3일 베이징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6일 영불연합군은 원명원을 점령하고, 7일 부근 민가와 원명원 몇몇 장소에 불을 지르고 영국영사 파크스가 석방되자, 8일 원명원에서 퇴군하였습니다. 12일, 영불미 삼국영사는 13일에 공친왕이 베이징성으로 들어와 조약문을 교환하지 않으면, 포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5일, 공친왕은 언제 조약문을 교환하겠냐는 서신을 보냈고, 17일에 답신이 오길, 청조는 포섭된 인질학대와 사망사건에 대해 영국에 30만 냥을 납부하고, 원명원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20일까지 답신을 주고, 22일까지 배상금을 지불하며, 23일 조약문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18일 원명원은 불타기 시작했고, 엘긴은 영국정부와도, 동맹군인 프랑스와도 아무런 상의 없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기록에 차이점에 대해서, 중국측 자료 『翁同龢日記』에는 배상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시 원명원을 파괴한다고 하였으나, 『圓明園：清代檔案史料』에서는 배상금과 원명원 파괴에 대한

조건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영국이 22일까지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서신과, 18일에 방화한 것에 따르면, 저는 후자의 기록(공친왕의 상소문)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2 차 아편전쟁의 시작과 원명원 방화사건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영불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청조의 속수무책울 볼 수 있습니다.

제 2 차 원명원 방화사건의 원인규명

왕카이시는 원명원 방화사건에 대해 문헌 정리를 한 결과, 아래 다섯 가지 이유로 묶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장은 1860년 10월 6일에서 8일, 영불 연합군이 원명원에 도착해 수많은 금은보화를 약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방화라는 사실은 약탈보다 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써, 약탈이라는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주장은 ‘범죄를 감추고, 함풍제를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원명원 방화사건의 본질을 다루긴 했지만, 여전히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압도적인 반면에, 왜 함풍제를 벌하기 위해서 방화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행동설’인데, 이는 영불연합군과 청군의 군사전투 속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군사 행위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주장은 영불연합군이 원명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설명은 되나, 엘긴이 왜 원명원에 방화를 명령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풍제가 인질을 고문하고 살해한 하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악한 백성이 방화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료에 의하면, 도적떼들이 원명원으로 들어와 약탈을 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이들이 방화를 주도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긴의 단독행동과 그의 개인적인 욕구

우선 영국군의 1 차 방화와 2 차방화를 구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계서는 1 차 방화사건과 2 차 방화사건을 혼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이럴 경우 엘긴의 명령, 즉 2 차 방화사건의 진실 규명이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裴广强 2014). 1 차 방화는 10 월 7 일 영불연합군이 같이 저질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裴广强的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엘긴의 단독 명령에 대하여, 그가 바랬던 인질을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0 월 18 일 자신의 동맹군인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화를 명령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2 차 방화가 영국군의 단독행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친왕의 상소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10월 19일), 불이(法夷)가 비밀리에 찾아와서, 영이(英夷)의 행동이 분별없이 도리에 어긋나고 과해, 이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이 협력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란트 장군과 엘긴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지 않았고, 지금 날씨가 매우 추워졌으니, 여기서 겨울을 보내기 힘들어 조속히 조약을 교환하면 바로 군사를 물리겠다고 했다(本日法夷帶兵向該員等密語，以英夷狂悖過甚，心眾頗為不服，不願與該夷同在一處，無如葛魯與額魯同辦一事未便明言，天氣寒冷，難在在此過冬，如可早日換約，即願退兵等語。) -- 『圓明園：清代檔案史料』(咸豐十年九月初六日).”

이로써 2차 방화사건에 대해서 프랑스 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동맹군 임에도 불구하고 방화명령에 대해서 영국이 단독 행동을 한 것은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째, 10월 6-8일에 있었던 약탈사건에 대해서 영국군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The Times 1874년, 3월 12일의 편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The Summer Palace, as well as the Treasury where the ingots referred to by General Montauban were found, had been in the possession of the French Army some hours before any steps were taken

for securing to the English Army any share in the captured property, and it was only when one of the English Prize Commissioners, seeing the French soldiers in full possession of the Treasury, insisted upon a fair division of the treasure, that any measures were adopted by the French for guarding it from further pillaged by their soldiers. As regards the other valuables taken by the French upon their first capture of the Palace, I am not aware that any division was ever made.” –The Times, 1874.3.12

사후, 프랑스군이 원명원 약탈에 대해서 영국군과 동등하게 분배했다는 기사가 나가자, 이에 대응하여 더 타임즈 편집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즉, 영국군은 프랑스의 약탈이 동등한 배분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영불 동맹은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엘긴은 다구포대의 패배를 덮을 수 있을 만한 ‘쇼(performance)’가 필요했습니다(Erick 2015). 다구포대에서의 패전은 내각 보수당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고, 전권 대표인 엘긴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中國近代史從書編寫組 1978). 다구 포대에서의 실패는 엘긴의 나약한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王天根 2014). 이로써 엘긴은 국내의 정치투쟁과 여론과의 싸움 속에서는 자신의 강경함을 입증할 쇼가 필요했습니다. 원명원이 그의 국내정치에서의

입지를 보장하는데 가장 좋은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명원은 유럽인들의 중국에 대한 환상이 가득한 정원이었습니다 (Erick 2015). 모토방 장군은 원명원을 보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편지에서 ‘짧은 글로 이 아름다움을 다 담지 못한다. 나는 다음 편지에서 자세히 묘사해 주겠다. 이는 나의 영광이다(The Times 1860.12.22)’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상 속의 궁전이 엘긴 눈에는 그저 황량하고, 지저분 하고, 정돈되지 않은 공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을 갖지 못한 채, 원명원은 ‘함풍제가 사랑하는 공원’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려 자신의 결단력을 영국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엘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명원은 재정악화에 처해있었고, 1858 년에 내무부가 보고하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고, 많은 곳이 헐고 뜯어지고 재정비가 필요했지만, 그럴 만한 자본이 없었습니다(圓明園 1991).

영불연합군의 내부 마찰이 없었다면, 엘긴의 단독 명령 또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국 국내 정치 상황이 모두 엘긴을 손가락질하지 않았더라면, 엘긴은 강경책을 단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외부 환경의 조성과 함께 엘긴 개인적인 욕구가 원명원 방화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인질 고문 및 살해 사건에 대한 징계

엘긴은 영국 사절단이 인질로 잡혀간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39 명중, 18 밖에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나머지 또한 고문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것을 보아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엘긴은 그의 일기에서 이는 ‘치떨리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하게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왕룽주 2015). 10 월 19 일 공친왕의 상소문에서 보면, 영국군은 그들이 방화한 행위에 대해 그 원인을 사전에 정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엘긴은 사절단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인 행위에 대해 징벌을 내리기 위해 원명원을 태운 것입니다.

“(10 월 17 일)나는 이런 서신을 받았다. 외국 병사 20 여명이 감금당하고, 학대당했다. 이에 대해 청조는 30 만 냡을 배상하고, 우리는 원명원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이에 20 일까지 답신을 주고, 22 일까지 배상금을 지불하고, 23 일에 조약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 이러한 무례한 상황에 대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日亥刻接到英法两夷照会, 均借口于前夷兵二十余名监禁凌虐, 英夷则称欲赔偿银三十万两, 及拆毁圆明园宫殿. 均定于初七日照覆, 初九日给银, 初十日换约各等语. 种种狂悖情形, 实勘发指).”-- 『圓明園：清代檔案史料』(咸丰十年九月初六日)

다른 연구는 엘긴의 방화 행위가 더 타임즈의 기자 볼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신분을 이용하여 국내 여론을 선동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입수한 더 타임즈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The Palace was not burnt for several days after its capture, and was destroyed, not to avenge the death of Mr. Bowlby, The Times correspondent, as is apparently implied by General Montauban, deeply as that gentleman’s death was lamented, but as a punishment, inducted upon the Emperor of China for an act of treachery to a flag of truce perpetrated by his Government, if not by his direct instructions, and the subsequent murder of some, and the ill-treatment of the remainder, of those who had been captured while under its protection.”—The Times, 1874.3.12

이 내용을 보면, 또 한가지, 프랑스 장군 몽토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60년 10월 6일, 영국군은 길을 잃어 프랑스 군보다 늦게 도착했고, 이로써 프랑스군은 여론을 먼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裴广强 2015). 더 타임즈에서 뒤늦게 해명 글들이 올라오는 것에는 영불연합군의 불화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하는 바입니다. 엘긴의 방화명령 뒤에는 인질 학대 및 고문이라는 분노와 청조에 대응하겠다는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 원명원의 폐허 앞에서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또한, 영국의 방화가 함풍제의 투항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圓明園』에 있는 상소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친왕은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조약문 교환 시기에 대해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엘긴이 17 일 서신을 보내기 이틀전에, 공친왕은 이미 서신을 보내 교환 시기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틀 뒤에 서신에는 배상과 파괴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원명원의 화재사건이 청조의 투항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조약문 비준과 교환이 소위 투항이라고 일컫는다면, 투항은 엘긴의 방화가 있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기미책과 서양의 근대 외교

원명원의 방화사건은 엘긴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의 질서와 서양의 질서가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Erick 에 의하면,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서양의 자유 국제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중화의 권위적 국제관계는 상존할 수 없는 관계이며, 하나의 질서가 다른 하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비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명원의 방화사건이 있기 전까지, 너무나도 다른 두 질서가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불신이 쌓여, 오늘날 원명원의 파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청조는 영불군의 군사력이 자신의 군사력보다 월등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미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미정책은 이(夷)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원명원 방화사건 뿐만 아니라 2 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영불미러를 상대로 ‘기미’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두 가지의 수단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초(剿), 군사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무(抚), 어루만지는 외교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자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무’외교는 동등한 국가간의 관계의 외교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어루만지는’ 기미정책입니다. 기미정책의 원칙은 청조에 대한 공손(恭順)한 태도입니다(魏军 2000).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 청조는 원명원이 불

속에서 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텐진조약』에서 함풍제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항목은 외교 사절단의 베이징 상주였습니다(『筹办夷务始末·咸丰朝(第7册)』1979). 이는 중국의 전통 예절과 체통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왕룡주 2015). 중국의 ‘예’와 서양의 평등한 국가관계는 상존하기 힘든 질서라는 것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원명원 방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파크스 사절단의 인질 사건 또한, 근본적으로는 동서양 질서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크스가 공친왕과 협상을 할 때 영국의 오만함과, 프랑스의 공손함이 결국 파크스 사절단의 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 이 때, 파크스가 일어서 말하길, 오늘날의 조약은, 그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직접 봐야한다고 했다. 또한, 그가 청하길, 먼 곳에서 온 병사들은 중국을 보기를 원하니, 군사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 공친왕은 그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자, 자신의 답을 기다리라고 했다. 얼마 뒤, 공친왕이 승격임명과 상의후, 파크스를 잡아 도성으로 보냈다. 프랑스 대사는 공손하게 대하자, 공친왕 또한 예로 대했다(法使无词, 巴夏礼起曰: “今日之约, 须面见大皇帝, 以昭诚信。”又曰: “远方慕义, 欲观光上国九矣, 请以军容入。”王见其语不逊, 答以须请旨定夺。久之, 巴出, 王密会僧格林沁计擒巴夏礼, 送京师, 以法使尚恭顺, 仍礼遣之。)-- 『清朝柔遠記』, 1989

영국이 원했던 외교는 평등한 외교였던 반면에, 중국의 외교는 예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다스리는 기미책이었다. 결국 파크스는 감금당했고, 인질의 고문과 사망사건은 원명원의 방화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중화질서를 기반으로 한 기미책과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서양 질서의 충돌이 원명원 방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공친왕의 외교책은 점차 서양의 외교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의 변화된 외교책은 시대의 맞는 외교라며 후대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 2 차 아편전쟁은 서양의 승리로 그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나가며

제 2 차 아편전쟁은 제 1 차 아편전쟁에 이어서 서양이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서 두 질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두 개의 상존할 수 없는 국제 질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존했을 것입니다(Erick 2015). 하지만 두 질서가 만나는 순간, 힘의 논리로 하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던 원명원의 방화사건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1860 년 10 월 18 일에 있었던 원명원 방화사건은, 영국의 전권 대사 엘킨이 영국 사절단의 고문과 사망소식을 접하고, 이에 청조에 ‘벌’을 주기 위한 영국군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엘긴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 한 강경책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는 다구 포대 패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승리와 성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절단의 인질 사건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고, 원명원은 엘긴 개인의 욕구에 대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원명원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

파크스 사절단 인질 사건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 뒤에, 동서양 질서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서양의 국제질서는 상하관계와 예를 중시하는 중국질서와는 상충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질서의 싸움에는 군사력의 경쟁이 있었고, 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청조에 비해 서양은 상업과 자유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앞서 나갔고, 그런 선진된 문명 앞에서 함풍제는

무기력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 중국의 질서는 원명원의 화재와 동시에 그 발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로 기반한 질서는 힘의 논리로 인해 처절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고문헌

왕룡주. 2015.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 김승룡·이정선 옮김. 서울: 한숲.

James L. Hevia. 2003. *English Lessons: The Pedagogy of Imperialism in Nineteenth-Century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Major General G. Allgood. 1901. *China War, 1860, Letters and Journals*, New York and Boombay: Longmans, Green.

Ringmar, Erik. 2015. *Liberal Barbarism: The European Destruction of the Palace of the Emperor of China*.

The Times. 1860, 1874

裴广强. 2014. “英法联军第一次火烧圆明园诸问题再考.” 北京社会科学第 6 期.

_____ 2015. “再论第二次鸦片战争中圆明园被焚毁之因：基于宏观视角的考察.” 北京社会科学第 8 期.

【清】王之春撰. 1989. 《清朝柔遠記》. 北京：中華書局.

【清】贾桢等编. 1979. 《筹办夷务始末·咸丰朝（第 7 册）》. 北京：中華書局.

王开玺. 2006. 《晚清政治新论》. 北京：商务印书馆.

王天根. 2014. “火烧圆明园时外交照会及礼单原件等稀见史料考释：兼论恭亲王奕訢与清季政治舞台.” 人文杂志第 4 期.

魏军. 2000. “试论鸦片战争前期道光皇帝的“羈縻”外交.” 西安外国语学院学报第 8 期卷第 2 期.

杨津涛. 2017. “英法联军为何只烧圆明园，不烧紫禁城？”文史博览第 12 期.

【英】斯坦利·莱恩－普尔. 2008. 金莹译. 《巴夏礼在中国》. 广西：广西大学出版社.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91. 《圓明園：清代檔案史料》上、下冊. 上海：上海古籍出版社.

中國近代史從書編寫組 編. 1978. 《第二次鴉片戰爭》. 上海：人民出版社.

청명상하도의 국제정치학 _중국국가박물관

주연정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중국 국가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19 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고대 중국 역사의 찬란함과 이후 근현대 중국의 근대국민국가화 과정에서의 민족적 부흥의 노력이라는 두가지의 큰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편전쟁 이전 중국 역사에 대한 전시는 상고시대 및 하은주의 고대사부터 청 말기까지 중국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통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송 왕조 시기의 전시품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유물들로 가득해 송 대에 이룩한 발전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박물관이 보여주는 송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문명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북방민족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열세로 인해 전연의 망을 맺고, 남쪽으로 쫓겨가는 상황은 송의 실체에 대해서 이분법적

평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군사적으로 취약하였던 관계로 결과적으로 송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축소되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만, 금수인 북방민족국가에게 군사적으로 참패하여 남송으로 쪼그라진 송의 역사는 비군사적 분야의 발전상과 대비되어 드라마틱하게 인식되곤 합니다.



▲ 중국국가박물관 전경

북송 말기, 수도 개봉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중국에 국보 제도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국보 1 호로 손꼽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작 시기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보통 1120년대 초반에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성문 안은 거리에 크게 늘어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식당에서 무언가를 먹는 사람들, 짐을 잔뜩 실은 말과 수레를 끌고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활상이

그러져 있습니다. 성문 밖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추측되는 큰 배들이 여러 척 정박되어 있거나 이동하고 있고, 강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위로는 무수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문에는 물건을 등에 실은 낙타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서역과도 교류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갓을 쓴 고려인 역시 짐을 들고 뒤따르는 하인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 개봉의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27년 금에게 패퇴해 북송은 망하고 남송으로 후퇴하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화려하며 국제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1~12세기 세계의 도시 발전수준을 봤을 때 청명상하도 속 개봉의 모습은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 강과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 시장경제활동,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림에 등장하는 무수한 사람들은 의복을 갖추고 정돈된 차림을 하고 있으며, 도시는 평화롭고 깨끗합니다. 또한 군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공권력 등 상위의 통제가 없이도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개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Hansen 1996; 김민호 2006). 실제로 송은 11~12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였고, 이 당시 송에 출현했던 사회경제적 변화의 모습은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체제의 발전에 변혁을 가지고 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모델스키는 송을 근대 세계질서의 맹아로 규정하며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미국으로 이어지는 서구의 국가들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이전 세계체제의 혁명의 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송 대의 다양한 발전을 단순 중국의 내부적인 성장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 근대적인 발전의 초기 모습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델스키의 접근에 기반한다면 송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위용을 떨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와 금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패해 남송으로 쫓겨 내려갔다는 사실은 사회경제적으로 세계적 혁명을 이루었던 송의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공식적인 경제네트워크의 루트가 개봉-콘스탄티노플(비잔틴)의 연결망이었고, 개봉이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중심적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만이었던 금의 군사적 침입을 막지 못해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이 극적인 역사는 단순 로사비적 관점에서 현실주의 힘이 작동하는 국제정치의 시기로만 분석한다면 송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박물관 내부의 모습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개봉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고려인 4 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을 실은 낙타 몇 마리가 그림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실크로드를 타고 서역과도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에 등장하는 고려인 일행을 보면 송과 고려 간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과 고려는 1070년대 다시 복교를 한 이후 상거라나 교역 부분에서 활발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고려와 송은 사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특히 북송이 금에 멸망하기 직전인 1123년에 고려로 보낸 사절단을 고려가 사대자소에 의거하여 상당히 극진히 대우한 것은 송과 고려 관계에는 송과 금 사이에 작동하던 질서와 다른 종류의 작동원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명상하도는 송에 대한 국제정치적 해석을 상당히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적인 금에 패하게 되는 송을 희화화하거나 중화로써의 송에 대한 향수를 그린 것이라는 논쟁점이 있지만, 모델스키가 보여주는 송의 위상을 고려하면 청명상하도 속 개봉의 모습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송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고려와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시적 체제에서 질서 유지는 다양한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천하질서를 분석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페어뱅크와 로사비의 모델은 각각 예와 힘을 중심으로 질서의 한 단면만을 봅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지 모르나, 천하질서가 보여주는 역사의 역동적인 부분을 포착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명상하도에서 출발하여 송이 국내의 사회경제적 부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안정적인 국내질서를 형성한 반면 북방지역과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보였던 외부질서를 다루는 속에서 송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力과 利와 義가 모두 작동하는 국제정치 질서의 총체적 작동원리를 초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청명상하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랑방 학우들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이상하다

청명상하도는 수도 개봉의 전체적인 경관을 묘사하는 풍경화 류의 그림이 아니라 상업적,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개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풍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과 항구 그리고 이와 가까운 성문 안을 중심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나, 다리를 통해 물자와 함께 이동하는 수 많은 사람들, 성벽을 지나 도시 안에서 여러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꽉 차있습니다. 도시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여러 상점과 음식점의 건물도 여러 층으로 잘 지어진 건물들이고, 번잡한 시장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모습도 잘 정돈되어 있으며, 일부는 문화적인 놀이를 즐기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개봉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명상하도만 본다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번영을 이룩하였던 개봉과 북송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민족국가들과 군사적으로 세력균형의 경쟁에서 결국 패하면서 남송으로 쫓겨가는 모습은 사회경제적인 발전상과 불균형합니다. 송의 이러한 역사와 청명상하도가 보여주는 불일치로 인해 청명상하도의 진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특히 청명상하도의 제작 날짜를 북송이 금에 패하게 되는 전후 시기로 본다면 청명상하도는 송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는 그림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활발한 시장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구 수에도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질서가 잡혀있는 개봉의 모습을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그림에서 보이는 인구밀도 정도라면 도시는 번잡하고, 가난하며 범죄도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청명상하도 속 개봉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제작 시점을 1100년대 중반으로, 북송의 멸망 시기보다 더 뒤의 시점으로 잡는 논의들은 그림에 드러나는 생활 풍속들이 송 대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금과 원이 천하질서를 장악해나가는 속에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이라기 보다 노스텔지아 차원에서 그려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청명상하도는 실재를 그린 것이 아니라는 의견, 실제보다 과장되어 표현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Hansen 1996, 190-194).

하지만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스키의 장주기론에서 송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개봉은 사회경제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도시였던 것을 확실해 보이고, 따라서 청명상하도 속 개봉의 모습은 당시 실제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야만인 금에게 북송을 패했던 것일까요. 모델스키가 주장하는 대로 근대적 세계질서의 선행지표로 송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대적으로 약했던 군사적인 능력은 송이 패권국으로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송이 주도세력으로써 내세웠던 발전모델은 군사적 경쟁에서 밀림으로써 영향력이 쇠퇴하였습니다.

군사력과 방어력의 취약성의 원인으로 개봉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거론됩니다. 개봉은 황하가에 위치한 평원 지역으로 방어 차원에서 도시를 보호해 줄 만한 산과 같은 자연환경이 없습니다. 북방의 기병들이 침략한다면 몇 일 걸리지 않아 황하를 거쳐 개봉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개봉은 낙양이나, 장안에 비해 안보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은 조운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개봉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물자의 수요와 공급 기반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육지보다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안보를 위해서 전대의 왕조들에 비해 더 많은 수십 만의 병사를 북방 지역에 주둔시켰는데, 조운을 통해서 북방의 군대에 양식과 물품을 공급한다면 안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김민호 2006, 321-2; Twitchett and Fairbank 2009, 222). 안보상으로 개봉은 최적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수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봉이 가진 지리적 조건은 송이 보여준 고도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함으로써 근대 국제질서의 선행지표로 송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북방민족들과 고려와 같은 주변국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로사비 모델(북방민족, 군사적)과 페어뱅크 모델(고려,

예적)이 혼합된 속에서 북방민족과의 경쟁에 군사적으로 패하면서 북송의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는 하영선 선생님과 사랑방 학우들

송의 국내질서 다루기: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

모델스키의 장주기이론에 따르면 콘트라티에프(K-Wave)의 선도 부문(Leading Sector)의 부상 및 성장과 패권국의 등장 및 쇠퇴는 일치하며, 선도 부문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발전된 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선도 부문의 기술혁신은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선도 부문을 이끄는 국가는 세계정치경제질서와 규범체계 재편을 주도하면서 패권국으로

부상합니다. 즉, K 파동의 선도 부문을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델스키는 북송-남송의 기간을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미국으로 이어지는 세계 패권의 부침의 가장 앞에 송을 위치시키며 세계체제는 송나라 시기에 근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Modelski and Thompson 1995).

송은 11~12 세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고, 사회경제적 변혁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였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적인 성장동력 차원으로 한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세계체제 차원에서 세계 시장경제의 첫 번째 발흥이라는 점에서 송의 경제혁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송에서 시장경제가 출현하고 중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중세의 혁명이라 불릴만 했던 중요한 요소로 경제와 기술 패턴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농경과 관개, 화폐, 시장구조, 도시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쇄(930~990), 시장경제 네트워크 구축(990~1060), 정치적 행정체제 구축(1060~1120), 글로벌 무역 확장(해양 교역 확장, 1120~1190)의 4 가지 K-Wave 의 선도 부문을 송이 주도하였습니다(Modelski and Thompson 1995, 159-170).

당시 세계는 체제적으로 국민국가, 기업체, 세계 수준에서의 네트워크가 초기의 형태로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정보관리가 용이해졌으며, 해양을 넘나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했고, 군사, 경제적 영역에서의 기술적 혁명은 세계시장 형성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의 발전이

실제 사회경제영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1) 국가 레벨에서 시장형태의 조직이 생겨나야 하고, 2) 글로벌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 구조가 점진적으로 조합되어야 하며, 3) 무엇보다 경제적 수요와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합니다(Modelski and Thompson 1995, 143-146).

송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발전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직, 체제가 구축되었고, 그 양적, 질적 규모와 발전 정도가 세계적이었던 관계로, 송의 국가 수준에서의 인구 폭발과 시장의 조직은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글로벌 무역체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송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요. 980 년 620 만호에서 1101 년 1,750 만호로 가구 수가 2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 1100 년대 세계 인구의 1/3 이 송의 인구였습니다. 송의 빠른 인구의 증가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인구 증대에 따른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이 촉진되었던 것이지요(Deng and Zheng 2015)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도시화도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20 개 주요 도시 중 7 개가 송의 도시였을 정도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던

근대적 국가, 사회, 경제 조직이 송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표 1> 800~1100 년 세계 인구에서 중국 인구의 비중

Year	Population		
	World (in Million)	China (in Million)	China (% of the World)
800	220	50	23
1000	265	60	23
1100	320	100	31

(Modelski and Thompson 1995, 146)

<표 2>를 보면 1100 년경 송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송과 주변국의 인구 규모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960~1125 년의 송의 인구가 약 1 억 2 천명의 수준을 보일 때 일본은 6 백만명, 고려는 3 백만명, 요는 3 백 80 만명, 여진은 1 백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국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도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송과 요, 여진은 국가발전 수준에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북방민족국가들과

정치군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2> 1100 년 경 동아시아 지역체제(regional System)의 인구

Political Unit	Year	Population (in millions)
Sung	960-1125	120
Japan		6
Koryo	935-1392	3
Liao	930-1125	3.8
Jurchen	1069 (1115-1234)	1

(Modelski and Thompson 1995, 150)

송의 국제질서 다루기: 군사적 경쟁의 실패

송은 당이 멸망한 이후 5 대 10 국의 분열을 봉합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송 태조는 963 년 이후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송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태조는 북쪽 세력의 실질적 위협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와의 직접 대결뿐만 아니라 북쪽 동맹왕국들에 대한 공격이 요와의 전면전으로 확장될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건립 초기 송 조정의 결정은 북쪽 세력의 군사적 힘과 맞서기 전에 남쪽 왕국들의 부유함과 인적자원을 먼저 흡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Twitchett and Fairbank 2009, 221).

<표 3> 송과 요의 군사력 비교

Years	Sung		Liao
	Total Number of Troops (in Thousand)	Imperial Troops (in Thousand)	Mounted Troops (in Thousand)
968-976	378	193	
969-983			36
995-998	666	358	
1017-1021	912	432	
Before 1031			61
1041-1048	1259		
1064-1068	1162	663	

1078-1085		612	
1101-1125			76

(Modelski and Thompson 1995, 152)

이상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송의 군사력은 양적 규모의 부분에서 매우 우세했으나, 문제는 질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북방민족과 군사적으로 겨룰 때 중요한 부분은 북방의 기병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기동성인데 송은 이 부분에서 약했습니다. 송의 군사들이 말을 다루는 능력이 약했음에도 수도인 개봉의 주변은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북쪽 국가의 기병을 활용한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요가 송을 군사적으로 다루었던 전술은 말과 기병을 활용하여 치고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는 500,000 마 정도의 우수한 말과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고, 송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기병의 수는 요의 1/3 수준인 193,000 마 정도였습니다. 군사들이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활숨씨, 기동성을 무기로 송나라의 보병 위주의 군사력을 위협하였습니다. 요는 눈부신 속도를 무기로 공격하고 후퇴하는 전술을 활용하여 송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의 건립 초기, 개봉을 중심으로 하는 송이 남, 북쪽의 여러 왕국들과 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하나 군사적으로 약한 남쪽 왕국들을 먼저 정복하는 전략을 세우고, 남쪽으로

확장하는 제국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 크게 이상한 만한 일은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Twitchett and Fairbank 2009, 221-222).

송의 등장과 북쪽 세력의 확장은 탕구트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삼각균형체제를 만들었습니다. 960년대 초반 이후 970년대 후반까지 송과 요의 대립이 거의 없었는데, 979년 송의 태종이 북한을 정복하면서 북방 진출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요가 980년부터 6년간 송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경 지역의 경제 기반이 파괴되었고, 허베이 지역 지주들에 대한 감세로 재정 수입이 감소되는 등 송은 국내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중 고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군사적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고, 여진과 고려는 오히려 요를 중주국으로 하는 관계를 맺었으며, 탕구트가 송에 등을 돌리고 요에 복속하면서 요가 북쪽에서 헤게모니를 확장, 강화하는 등 국제정치적 손해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송 조정 안에서 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군사적 방법 보다는 외교적 방법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Twitchett and Fairbank 2009, 247-251).

1004년에 요가 송을 대규모로 공격하였습니다. 요는 6일 만에 개봉에서 200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은 Shan-yuan 지역에 도달하였습니다. 요는 전쟁을 지속, 심화시키면서 자신들에 유리한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 목적이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uan-nan 지역의 지배권

귀속여부를 두고 요와 송이 끝까지 대립하였지만, 송이 요에 금전적으로 매년 조공을 하는 대가로 이 지역의 지배권에 대해서 요가 후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송은 요에게 매년 100,000 은화와 200,000의 실크를 제공하고 상호 국경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전연의 맹(Shan-yuan 조약)을 체결합니다. 중화이자 천자의 국가인 송이 이적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군사적 대결을 최소화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었지만, 이전의 경험을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요를 다루고자 한 송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열세를 경제적으로 보완해보고자 한 송의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았습니다. 1126년에 금의 침략을 받아 남송으로 쫓겨내려간 것입니다(Twitchett and Fairbank 2009, 260-267).



▲ 송의 패권 모델에 대해 토론 중인 사랑방 학우들

송이 주변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북방국가들과는 군사적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였지만 고려와는 예적인 요소가 이어져왔습니다. 고려가 요와 조공책봉관계를 맺음으로써 러송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1071년에 복교가 되고 이후 북송이 멸망하는 1127년까지 송과 고려는 사대자소에 입각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청명상하도에 갓을 쓴 고려인이 짐꾼들을 이끌고 개봉의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등장할 정도로 러송 간 교류는 빈번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송의 시기 주변국 정세를 관리하는 문제에서 요가 흥망을 하고 금이 등장하는 속에서 이들과는 군사적 관리를 잘 해야 했고, 고려와는 예를 통하여 관리를 했는데, 고려와의 관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 반면, 요, 금의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송은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의 패권모델과 국제질서의 복합적 작동원리

송의 패권모델을 보면 국제질서를 다루는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송은 여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내적 환경을 관리, 조직, 정비해나가는 과정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이 당시 세계의 수준에서 가장 선도적이었던 관계로 송은 세계

경제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질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이지요.

하지만 국제질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송의 패권모델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적인 관계가 작동했던 고려와의 관계는 지속되지만, 군사적 요소가 작동했던 요와 금의 북방민족들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송은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제국으로 완전하게 기능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이 자신이 이룬 사회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이(利)의 국제정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예를 바탕으로 하는 의(義)의 국제정치는 고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작동하였던 반면, 력(力)의 국제정치에서는 실패하여 북방국가들에 의해 송은 자신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국제정치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전통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예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내용의 페어뱅크 모델(Fairbank 1968)과 힘의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어있는 로사비 모델(Rossabi 1983)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송과 북방국가 간의 경합적 관계로 인해 이 시기 천하질서를 유지하는 동력은 보편적으로 로사비의 모델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스키가 지적하듯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송의 고도의 발전 정도와 고려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듯 예와 규범이 작동하는 당시 질서는 로사비의 접근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남송으로 쫓겨간 상황에서도 송이 약 150 년간 국가를

유지하고, 천하질서가 존속되었던 동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현실주의적 경쟁의 관점으로만 국제질서의 운용을 분석하는 것은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익과 규범의 압도적 논리에도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영향이 약해질 수 있음과 힘의 논리에도 이익과 규범의 논리가 지속되는 국제질서의 복합적 작동원리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청명상하도에서 출발하여 송의 실제와 위상을 재고찰하는 작업은 력(力), 이(利), 의(義)의 국제정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질서의 모습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민호. 2006. “북송 개봉의 풍속과 변영의 기록: 맹원로의 <동경몽화록> 읽기.” 『중국어문학』 47 권.
- 맹원로 저, 김민호 옮김. 『동경몽화록』 서울: 소명, 2010.
- Deng, Kent and Lucy Zheng. 2015. “Economic Restructuring and Demographic Growth: Demystifying Growth and Development in Northern Song China, 960-1127.” *Economic History Review* 68-4.
- Fairbank, John k.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Hansen, Valerie. 1996. “The Mystery of the Qingming Scroll and its Subject: The Case against Kaifeng.” *Journal of Sun-Yuan Studies* 26.
- Modelski, George and William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Economics and Politics*. Columbia S. 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5.
- Rossabi, Morris.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 - 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Twitchett, Denis Crispin and John K. Fairban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5, Part One: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 : 이상과 한계 _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손상용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며

“내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하여 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는 데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했던 비극과 실패는 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는 환상이라는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님 웨일즈, 1984, 464)

이런 말을 남긴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본인의 생애와 나라의 역사가 실패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랑방 10 기 답사의 둘째 날 우리가 만나고자 했던 김산입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 인민공사를 모티프로 운영 중인 식당에서 푸짐한 점심을 먹고 김산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 청시(城西) 구역의 완핑청(宛平城)에 위치한 중국 인민항일전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1987년 항일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1931년 9.18 사변부터 1945년까지 항일전쟁에 대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박경석 2009, 169).



▲ 중국항일인민기념관의 시작점에 있는 조각상

하지만 약 5000여 점에 이르는 중일 전쟁과 관련된 사료 속에서도 주인공인 김산의 행적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산 이외에도 과거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항일 투쟁을 했던 적지 않은 수의 혁명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기록조차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산의 행적은 님 웨일즈에 의해 『아리랑』이라는 소설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산의 삶을 소개하기에 앞서 김산과 님 웨일즈의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둘의 만남은 1937년 옌안의 루쉰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님 웨일즈 1984, 40). 이후 님 웨일즈는 약 3개월 동안 김산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며 김산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님 웨일즈는 ‘중국 인민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으로 남편인 그에게 “아시아의 황후가 되고 싶어 중국에 왔다” 라고 말 할 정도로 당돌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옌안의 작은 도서관에서 영문책을 유난히 많이 빌려가고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한 청년에게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님 웨일즈는 김산으로부터 이름조차 낯선 나라인 ‘조선’을 처음 듣고 김산의 인생에 크게 매료되고 그의 삶을 엮은 한 편의 소설을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답사 보고서에서는 김산과 님 웨일즈가 함께 작성한 『아리랑』을 중심으로 김산의 삶을 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 생생한 중일전쟁의 기록과 함께 복원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김산의 삶을 복원하기에 앞서, 그의 삶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산의 본명은 장지락(張志樂)으로 1905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산은 10대 시절을 조선에서 보내며 일제 강점기의 쓰라린 아픔을

몸소 체감하는데요. 무엇보다 1919년 3.1 운동의 좌절을 직접 목격하며 김산은 16세의 나이로 조국을 떠나 일본 유학 길에 오르게 됩니다. 1년 남짓의 짧은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김산은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혁명에 참여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산은 조선의 가장 참담한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불꽃 같은 혁명가의 삶을 살다 떠났습니다. 김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그가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싸웠던 항일 독립운동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를 무대로 김산이 평생을 믿고 실천했던 생각을 ‘동아시아 3국 혁명론’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김산에 관한 미스터리

김산은 1938년 그가 평생을 헌신했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비밀리에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1983년에 중국 공산당은 그의 당적을 복권시켰으며, 1992년에는 북한 정부는 김산을 항일투쟁사의 인물로 기록했고, 2005년 한국 정부는 조국해방을 기념하며 김산에게 서훈과 함께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김산의 삶과 죽음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산의 삶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체포 당시의 김산

군정대학에서 일본 경제, 정치와 물리학 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김산의 이력만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항일 독립 운동가였던 김성숙 선생님이 김산의 지위와 행적에 대해 치켜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김학준 2005). 하지만 김산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의 항일 전쟁기에 조선의용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하고 광복 후에 공산당 고위직에 오른 문정일이라는 인물입니다. 문정일은 “그런 인물을 중국 내 조선인 혁명가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추켜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미즈노 나오끼, 1993, 147). 이처럼 김산의 중국 공산당 내부 입지와 활동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활동한 조선인으로서 김산이 지니는 대표성 논쟁입니다. 다시 말해, 김산은 1920년대, 1930년대에 중국 혁명에 참가한 적지 않은 조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혁명가 일까요?

중국 측 사료에 따르면 김산은 공산당 내부에서 북경 공산당 비서이자 화북 조직 위원회 위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김산은 지적 능력을 인정받아 항일

둘째, 김산의 죽음에 대한 의문입니다. 김산의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은 『아리랑』의 저자인 님 웨일즈가 주장하는 ‘병사설’과 『아리랑 그 후』의 저자인 이회성·미즈노 나오끼가 주장하는 ‘숙청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김산이 ‘트로츠키주의자’와 ‘일본의 스파이’로 몰려서 숙청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과 중국에서 발간된 『조선족 혁명 열사전 제3집』에서 확인되어 정설로 수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는 김산의 명예와 당적을 회복하며 김산의 죽음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내 조선인 혁명가로서 김산의 대표성과 김산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트로츠키주의자’ 혹은 ‘일본의 스파이’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김산의 죽음에 이러한 오명을 부여한 것일까요? 본 보고서에서는 김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넘어 학술적으로 혁명에 대한 김산의 생각을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이라 명명하고 형성 과정, 실천, 한계를 그의 삶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김산의 삶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김산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김산의 동아시아 3 국 혁명론 형성 과정

김산의 혁명론은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산은 유년시절을 조선에서 보내며 일본의 잔혹한 지배 속에서 국내 해방운동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1919년 3.1 운동 실패를 기점으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꿈꾸게 됩니다. 조선을 떠난 김산은 일본에서 1년 남짓의 짧은 유학 시절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중국 혁명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김산은 국제사회주의에 근거한 ‘동아시아 3 국 혁명론’을 형성합니다. 즉 김산은 조선, 중국, 일본 노동계급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추후에 일본에서 일어날 사회주의 혁명이 조선과 중국으로 확대되어 조선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이를 평생에 걸쳐 실천합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혁명 역량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중국 혁명에 참가하여 중국의 혁명 역량 성숙을 도모하고,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의 혁명 역량 제고를 통한 조국 독립 투쟁을 도모한다는 생각입니다(남웨일즈 1997, 334). 본격적으로 1920년대, 1930년대 김산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그의 혁명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21년에 김산은 16세의 나이로 일본에서 짧은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의 메카였던 동경의 분위기 속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사회주의를 학습하고 일본 공산당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됩니다. 즉 김산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일본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애정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산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19 년에 혁명적 계급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일본 공산당원은 정직하고, 강인하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열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몸을 바친다. 나는 내가 잘 아는 일본인을 정말로 좋아한다. 중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조선인이나 그 밖의 외국인 동지들을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며 정말로 국제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남 웨일즈 1997, 114).”

1921 년 후반에 김산은 일본 유학 생활을 끝내고 중국 본토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김산은 신흥무관학교를 거쳐 잠시 상해에서 활동하며 이동휘, 안창호 등을 만나고 의열단에 가입하며 잠시 무정부주의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손염홍 2017, 308). 하지만 북경으로 건너간 그는 김충창을 만나 본격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학습하고 중국 혁명에 참여하는 어엿한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됩니다(손염홍 2008). 1927 년 김산은 조선인들을 이끌고 광둥 봉기에 참여, 활약하며 중국 공산당원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중국공산당 역사 자료 총서 중공당사자료출판사 1988). 이와 더불어 김산은 1920 년대에 중국 혁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혁명 역량 강화에도 힘씁니다. 대표적으로 김산은 1925 년에 북경 사회과학연구회, 1927 년에 의열단, 한국혁명동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떠나면 중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합니다(미즈노 나오끼 1993, 93).

1930 년대 김산의 행적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중국의 혁명역량 제고에서 ‘조선의 혁명역량 제고’로 노선이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930 년대 전반부에 김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첫째, 김산은 두 차례나 체포되어 일본 경찰로 이송됩니다. 1930 년 11 월 김산은 광둥 무장봉기 3 주년 기념행사 집회를 준비하던 도중에 국민당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경찰로 이관됩니다. 일본 경찰로부터 혹독한 고문과 재판을 받았지만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됩니다. 이후 1933 년 4 월에 김산은 두 번째로 체포되지만 공산당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김산을 석방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투옥을 통해 김산은 건강과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공산당 동료들은 김산이 일본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풀려난 것을 보며 김산을 ‘일본의 스파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김산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또 다른 조선인 혁명가인 한위건의 갈등관계가 증폭됩니다. 김산에 대한 중상모략의 이면에는 한위건이 있었습니다.

한위건은 김산이 베이징 당 조직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던 시절에 자신의 당적과 관련된 부탁을 김산이 거절한 것을 계기로 김산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물론 이를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김성숙의 『혁명가들의 항일회상』에 따르면 “한위건은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철부라는 필명으로 이론을 제시하여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철부 노선이라는 말이 퍼졌다”에서 드러나듯이 한위건의 위상은 매우 높았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김산의 입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했습니다(한상도 2004, 184). 아래에서 김산의 인식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931 년 4 월에 그는 다른 조선인의 추천으로 당에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돌아왔으므로 만일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자기가 나나 당에서 함께 일 할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사를 걸고 정치적, 개인적 숙적과의 투쟁에 몸을 바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씨는 이전에 나와 싸운 적이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을 몇 사람 동원하고 또한 몇몇 공산당원들까지도 내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내가 자술서를 썼으며 첩자로서 왜놈들과 비밀 연락을 갖도록 강요 받았다고 하는 암시를 던지시 비춘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을 통해 김산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으며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김산은 중국 공산당 내부 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며 근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역량을 가진 일본과 비교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정과 환멸이 커져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사실은 그의 소외감을 더욱 증폭시키게 됩니다.



▲ 항일전쟁기념관 내부 발제 장면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 이상 및 한계

동아시아 3국 혁명론과 조선 독립에 대한 김산의 이상은 조선민족연합전선 행동강령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족연합전선 행동강령을 작성하기 전까지 김산의 행적은 중일전쟁이 임박함에 따라 조선의 혁명 세력 결집을 위해 상해로 떠나 조선의 독립 운동 단체 결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김산은 조선의

독립 운동을 위해 중국 공산당에서 당적 회복을 바라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거절하며 조선 측의 혁명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이에 따라 김산은 1936 년에 상해에서 김성숙, 박건웅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등 이념을 구분하지 않고 민족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민족해방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미즈노 나오끼 1993, 124). 이와 더불어 김산은 조선민족연합전선을 구축하고 1936 년 7 월에 주도적으로 조선민족연합전선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게 됩니다. 김산이 직접 집필한 조선민족연합전선의 행동강령의 발췌 항목을 통해 김산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 1 항 전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조선독립의 원칙에 찬동하는 모든 조선인은 사회·계급·당파·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조에 관계 없이 또 여하 한 조직이나 개인의 구별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뭉쳐야 한다.

제 11 항 일본의 대아연방 진출과 중국 침략에 반대하여 중국인의 항일민족 전선과 아연방의 반침략노선과 동맹을 체결하라.

제 13 항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 억압을 받고 있는 동양 전 민족의 중심세력이 되어 동양의 광대한 반침략평화전선을 조직하기 위하여 중국, 소연방, 일본 및 조선의 인민간에 일대 공동전선을 형성하라.

제 3 항에서 김산은 계급 투쟁을 중단하더라도 조선 독립을 위해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 11 항, 제 12 항, 제 13 항, 제 14 항에서는 동아시아를 무대로 계급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12 항에서는 일본 내부의 반파쇼 인민전선을 단호히 지지하며 협력관계를 맺으라고 하는데 일본 노동 계급에 대한 김산의 신뢰와 더불어 동아시아 3 국 혁명론의 한 축인 한일 노동 계급의 연대를 시사합니다. 제 13 항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중국, 조선, 일본의 노동 계급이 연대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산은 피식민지 조선인 혁명가로서 비록 중국 혁명에 참가하였지만 정통 공산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었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중국 혁명은 김산에게 지상 목표가 아니라 조선 독립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방법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산이 동아시아 3 국 혁명론을 통해 예측한 것과 다르게 혁명의 도미노는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중일전쟁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은 요원했습니다. 따라서 김산의 혁명론에 내재하는 논리적 오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김산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김산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산은 1931 년 9 월 18 일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균형을 잃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국제체제적 관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스페인에 발이 묶여 있고 소련은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요 강대국들이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김산의 생각과는 다르게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본 사회주의 세력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노동당은 정부에 의해 1924년에 해산되고 1926년에 다시 지하정당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1925년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탄압이 심해지고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정혜선 1995, 143). 따라서 일본에 조선 혁명과 해방을 위한 전략적인 ‘혁명기지’가 있고 일본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는 조선이 무장 투쟁에 가담하여 조국 해방을 도모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김산의 생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인 것이었습니다.

둘째,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은 당대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코민테른 뿐만 아니라 김산이 활동했던 중국 공산당과도 엮박자를 보이게 됩니다. 김산이 활동하던 당시에 개최된 코민테른의 주요 회의는 1924년 코민테른 제 5차 대회, 1928년 코민테른 제 6차 대회, 1935년 코민테른 제 7차 대회입니다. 1920년대의 코민테른 주요 쟁점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독자적 혁명 역량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며 이에 따라 제 5차 대회에서는 트로츠키주의를 위협한 이념 편향으로 간주하고 레닌주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제 6차대회에서 소련 공산당은 기존의 국제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스탈린주의로 노선을 변경하고 자본주의 몰락을 예견하며 공산 세력이 독립성을 지키며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동시에 ‘12 월 테제’를 통해 한인 혁명가들이 중국 공산당 내부로 편입할 것을 지시합니다(손염홍, 2017, 297). 김산의 동아시아 3 국 혁명론은 코민테른 노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고 제약을 받으며 발전하게 됩니다. 김산은 『아리랑』에서 코민테른 제 5 차 대회를 지지하며 코민테른 제 6 차 대회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산은 광둥봉기 이후 조선 혁명역량이 부재했다고 믿고 북경 공산당 비서 및 화북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1935 년을 기점으로 김산의 동아시아 3 국 혁명론은 코민테른 · 중국 공산당과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됩니다. 김산은 중일전쟁이 임박했고 조선의 혁명 역량이 충분히 배양되었다는 판단 하에 조선의 자체적 혁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습니다. 조선 공산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김산의 인식은 아래에서 잘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이 임박하자 일본과의 격전을

“우리는 더는 물속에 녹아 있는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잃어 버릴 처지가 못 된다. 우리는 쫓겨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세력에 가담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중국에 가세해야만 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행동을 위하여 조선인의 운동을 건설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우리의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남 웨일즈 1997, 459)”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산은 중국 공산당 노선에 분노를 표하고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항일 군정대학에서 김산은 일본에서 대공황과 사회주의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위험한 그의 사상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일국 사회주의’에 입각한 중국 공산당의 노선에 비추어 볼 때,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의 한 축인 일본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산은 ‘트로츠키주의자’ 혹은 ‘일본의 스파이’라는 오명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며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의 시작과 끝에서는 결연한 표정의 거대한 중국군 조형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진중한 표정과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고 있는 그 무게 속에서 저는 김산에 대한 미스터리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중국 혁명에서 마오쩌둥은 오늘날까지 혁명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산을 기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 답사 보고서에서 추적했던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은 당시 동아시아의 제반 환경에 대한 김산의 판단이 완벽한 오판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신뢰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는 결국 김산이 ‘트로츠키주의자’

혹은 ‘일본의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 김산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전쟁기념관 내부 윤봉길 의사에 대한 짧은 소개

저는 반대로 전쟁기념관의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김산이 살았던 1930 년대의 중국과 조국을 잃은 한 청년의 연대기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김산은 어린 나이에 홀로 일본 유학 생활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혁명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김산의 가슴 속에서 조국의 해방이라는 목표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물고문을 받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조선인 동포와 함께 투쟁했던 중국 공산당 동료로부터 버림 받았을 때조차 그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김산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것은 중일 전쟁의 임박과 조국의 해방에 대한 믿음이

답긴 그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이었습니다. 물론 한 명의 혁명가에게 엄정한 사상체계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산의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은 동아시아를 누비며 항일 운동을 도모했던 김산의 삶의 정수이며 동시에 가장 암흑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촛불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김산의 삶을 이해하고 그가 느꼈던 시대의 무게를 나누기 위해 ‘동아시아 3국 혁명론’을 소개하며 답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 김산, 님 웨일즈. 1997. 《아리랑》. 송영인 역. 서울: 동녘.
- 님 웨일즈. 1986. 《아리랑 2》. 편집실 역. 서울: 학민사.
- 미즈노 나오끼. 1993. 《격동의 서른 세 해》. 서울: 동녘.
- 박종성. 1995. “김산의 혁명사상 연구: 유산된 혁명의 정당성은 옹호될 수 있는가?” 〈사회과학연구〉 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47-76.
- 손염홍. 2008. “192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한 김성숙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4.
- 손염홍. 2017. “1920~30년대 북경지역 한인들의 사회주의 혁명운동.” 47 권, 〈한국학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93-329.
- 신주백. 2005. 《1920~19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서울: 선인.
- 이혜영. 2009. “근대 초기 한 조선인 혁명가의 동아시아 인식.”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7, 177-200.
- 이희성, 미즈노 나오끼. 1993. 《아리랑 그 후》. 윤해동 역. 서울: 동녘.
- 이희성. 1993. 《특별한 여행》. 서울: 동녘.

이화원을 사랑한 서태후와 청일전쟁의 패전책임 _이화원

이지은

서울시립대학교

서태후의 여름궁전

2018년 7월 4일, 사랑방 10기는 베이징 답사의 두 번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차례로 국가박물관과 전쟁기념관에 들러; 각각 송나라와 김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모두가 지쳐갈 때쯤 동북지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인민공사’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문혁시기의 마오쩌둥과 인민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들을 보면서 유쾌한 식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청조의 여름궁전으로 유명한 이화원이었습니다. 날은 여전히 찌는 듯 더웠지만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궁의 입구는 이화원이 서태후에게 그토록 사랑받은 이유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널리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화원을 서태후의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운 삶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화원은 어제 우리가 방문한 자금성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륭제 재위 당시에 ‘청의원(淸漪園)’이라는 이름으로 청조의 황실정원으로 처음 조성된 이곳은 1860년에 영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는 서태후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1886년 지금의 명칭으로 재건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소모된 비용의 규모와 조달 방법과 관련해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이화원을 짓기 위해 거액의 북양해군 예산을 유용했고, 군비가 부족한 채로 청일전쟁에 임했던 북양해군이 패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이화원에서 그녀가 휘두른 권력의 양상과 청 해군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서태후에게 물을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겠습니다.

권력자 서태후

훗날 서태후로 불리는 자희(慈禧)는 1835년 11월 29일 베이징의 한 만주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1852년에 총 8계급의 내명부 내에서도 하위계급인 6급에 해당하는 함풍제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입궁합니다. 그러다 1856년 동치제가 되는 원자를 출산하면서 자희는 황자의 생모자격으로 1급에 해당하는 황후의 칭호를 받습니다. 이는 황제의 정실부인인 자안태후와 동일한 계급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자희태후는 동쪽의 자안태후와 구분하여 서쪽의 태후, 즉 서태후로 불리면서 내명부 내에서 2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61년 남편인 함풍제가 8명의 대신이 공동으로 동치제를 섭정토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공친왕, 동태후와 함께 신유정변을 성공시키면서 동태후와 함께 수렴정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황실이 내리는 칙명에는 두 태후 모두의 인장이 필요하긴 했지만 점차 모든 결정이 서태후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김형중 2010, 44). 이렇게 섭정이라는 간접통치 형태로 서태후가 청조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시기는 신유정변부터 광서제의 친정이 시작되는 1889년까지입니다.

광서제와 서태후는 광서제의 혼인을 기점으로 점차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한 광서제는 이제 서태후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은퇴와 동시에 자금성을 나온 서태후는 1891년에 아직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이화원으로 우선 이사하였습니다. 이때의 이화원은 서태후가 광서제에 의해 자금성에서 일어나는 국정 전반에서 배제 및 고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화원으로 이사한 후에 서태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광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은, 은퇴

이후에 서태후의 정치적 활동은 대신들이 마련한 일련의 규칙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광서제가 국정을 서태후와 논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서태후도 그 결정에 발언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황실에 접수된 보고서들의 내용은 제외한 그 제목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광서제는 문안인사를 위해 서태후를 방문하면서도 그녀와 국사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광서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서태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Chung 2013, 252-253).

비록 그녀가 동식물에 둘러싸여 뱃놀이를 즐기는 이화원에서의 삶을 무척 사랑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되는 청일전쟁 도중에야 다시금 정계로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서태후가 가졌던 권력의 정도와 한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일선에서 서태후가 최대 48 년 동안 한결같이 청조를 휘두른 절대권력자로 묘사되는 것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화원 재건공사

다시 이화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청조가 이화원을 재건하게 된 까닭이 이곳을 서태후의 은퇴 후 거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화원보다도 먼저 이러한 목적으로 고려되었던 공간은 원명원(圓明園)이었습니다. 동치제 12 년인 1873 년에 원명원을 부분적으로 재건하도록 하는 칙명을 발표하였지만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1886 년에 특히 이화원을 마음에 두었던 서태후가 은퇴를 앞두고 “예전의 황제들이 자주 찾아갔던 승덕의 피서산장과 같이 값비싼 여행을 다니거나 최근에 근대화된 해군을 방문하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평소 소망해왔던 은퇴 후의 거처를 건설하고 싶다(Chung 2013, 247)”고 밝혔고 이전과 같이 극심한 반대는 없었기에 이화원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이화원에서 곤명호를 바라보는 사랑방 학우들

여기에는 1894 년이면 환갑을 맞이하는 서태후의 생일잔치를 이화원에서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서태후의 개인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서양의 공격으로 인해 실추된 청 황실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청조의 정치적 고려가 모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허명길 1984, 30-32).

문제는 이 공사에 소모된 비용이 막대했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서태후가 당시 리홍장이 이끌던 북양해군의 예산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구비용 및 유용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규모와 출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총 복구비용이 최대 은 600 만냥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에 예산처가 전체 공사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56 개 공사 현장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316 만 6700 냥으로 추산했기 때문입니다(Chung 2013, 247-248). 이화원을 복구하는 데에 600 만냥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는 광서제의 결혼 비용인 550 만냥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태후는 공사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300 만냥을 직접 저축한 자금에서 보태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화원 재건을 꼭 추진하고 싶었던 서태후는 공사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호부(戶部)의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그녀가 찾아낸 방법은 당시 해군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았던 순친왕과의 정치적 친밀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의 해군에는 매년 400 만냥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순친왕은 서태후가 외국의 은행에 넣어둔 해군의 예산에서

연간 30 만냥의 이자를 취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장용은 서태후가 국가 재정에 직접 손을 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 300 만냥 가량을 해군비에 기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흡사 서태후의 자금 유용을 합리화하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기부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청의 국가재정과 일반 국민의 생활상을 고려한다면, 황실의 여름궁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는 필수가 아닌 사치스러운 선택이었고 이에 소모된 공사비용이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 해질녘의 곤명호와 불향각

다만 이러한 사치가 저지되었던 1873 년과는 달리 1886 년에 재건공사를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청의 국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견제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 해군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앞에 드넓게 펼쳐진 호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청 해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서태후가 해군의 예산을 유용하여 이화원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북양해군이 청일전쟁에서 참패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북양해군이 연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청일전쟁에서의 승자는 바뀌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 해군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대 전쟁에서 특히 해군력이 전세를 좌우하게 되는 까닭은, 제해권을 차지하는 쪽이 육지를 통해 신속히 군사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과 중국도 바다를 통해서만 조선에 병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Paine 2003, 152; 김용욱 2008, 31). 일본은 전쟁을 개시한 지 약 2 개월만인 1894 년 9 월 17 일, 이미 황해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청 함대의 30%를 물리쳤고 이는 전세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일찍이 해군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일본은 청일전쟁을 앞두고 육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해군력 증강에 투자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군에는 4 천 700 만엔, 해군에는 1 억 6 천 900 만엔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특히 해군예산은 1881 년 대비 1891 년에 200% 증가한 수치입니다. 1895 년 일본의 군사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Paine 2003, 327). 청일전쟁에 참가한 일본의 군사력은 총 10 만의 군사와, 해군의 경우 32 척의 전함 그리고 23 척의 어뢰정을 보유한 규모였습니다 (Rawlinson 1967, 168).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청조 역시 1860 년대부터 서태후와 리홍장이 앞장서서 군사력 증강 및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서태후는 꾸준히 청 해군의 군비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의지가 북양대신 리홍장을 통해 실제 시행되었습니다. 리홍장은 선박 구매부터 건조, 무기 제작 등과 같은 군사관련 임무 전반을 수행하였으며 1871 년에는 북양함대를 건립합니다. 북양함대는 청일전쟁 전까지 전력 규모로는 세계 8 위, 극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강력한 해군 함대로 평가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적어도 해군력 측면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당시에 중국 해군은 65 척 규모의 전함과 43 척의 어뢰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양해군이 보유한 7 천여톤 규모의 철갑함 정원(定遠)과 진원(鎮遠)은 일본에 위협적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영국해군의 부사령관 발라드(G. A. Ballard)는 이들 철갑함을 두고 “일본 최고의 전함 6 척을 합친 수준의 전함”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 학자는 이미 북양해군만의 규모가 일본 해군 전체의 규모와

비슷했다는 점에서 해상전에서는 충분히 중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Rawlinson 1967, 168).

사실 보유 전함의 규모만을 비교하면 오히려 중국이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조가 배정한 연간 400 만냥의 해군예산도 거대한 규모의 전함을 보유하기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군의 근대화를 위해 동원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됩니다(이종호 2015, 30). 또 미흡한 군사훈련과 근대지휘체계 부재로 인해 전투력이 낮았고(Upton 1878, 20), 군사전략이 방어전 위주로 잘못 설정되었던 점 등도 구체적인 패배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청 해군의 군사전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리홍장이라는 인물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 해군은 지나치게 방어전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토록 방어적인 해양전략은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에게 위협으로 인식된 세력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기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내륙방어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조한승, 119; Paine 2003, 218). 중국은 명나라 들어서야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왜구가 연해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수비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데에 그칩니다.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하는 기존의 국방관념이 유지되고 있던 것이지요.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중국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사건은 1874년 일본이 대만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리홍장도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당시 청조가 내륙방어보다도 해상방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황실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Paine 2003, 218). 그러나 현장지휘관으로 리홍장은 함대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게 건설한 함대를 주로 연안지역을 방어하는 데에 사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홍장은 기존의 국방관념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고, 평소에 타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의 외교주의자적 면모가 이렇듯 수동적인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劉中民 2013; 233-243). 실제로 리홍장이 8월 14일 하달한 명령서에는 방어와 수비에 관한 내용만이 담겼고 공격 계획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리홍장의 소극적 방어전략 하에서 강력한 북양함대는 적극적으로 적을 찾아나서지 못한 채, 웨이하이에 머물며 상대를 겁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청해군에는 단일화된 지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양해군을 이끌던 리홍장과 같은 관직과 권한을 가진 사령관이 총 6명이나 되었습니다. 실제 전쟁에는 일부 함대만 동원되었지만 모든 함대가 참여하였더라도 엄격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아 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Rawlinson 1967, 169; 량치차오 2013, 179).

이처럼 우리는 근대 해군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비단 무기나 장비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휘체계와 적극적 군사전략이 마련되었는지 역시도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일전쟁 발발 약 20년 전부터 청조가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힘썼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적 한계가 무척 아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일전쟁의 패전책임: 이화원을 나서면서

이화원과 관련한 질문의 시작은 이화원을 복구하느라 북양해군이 패배했다는 논리가 성사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우선 북양해군이 일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군비부족 외에 다른 요소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패전의 원인을 따지는 목적이 단순히 특정한 개인에게 패전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그를 비난하기 위한 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논의들을 통해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서태후가 아니라면 청일전쟁의 패전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지휘관으로 북양함대를 이끈 리홍장은 군사전략 설정과 현장에서의 전투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끈 북양함대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수동적인 방어전을 구사하였습니다. 매년 거대한 금액을 들여 새로이 구입하고 건조한 함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기회가 리홍장으로 인해 차단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군사전략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인물은 리홍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광서제 혹은 서태후 정도에 한정되지만, 청일전쟁 직전까지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리홍장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한편 당시에 정치실권을 장악한 광서제와 그의 스승 옹동화는 기본적으로 국방보다 국내적 위기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도 군사적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서제의 친정이 시작된 1889 년 이후에는 해군함이 전혀 증설되지 않았고, 1891 년 에는 해군을 비롯한 모든 군대에 투자를 중지하도록 명령한 사실도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태후가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사로 사치를 부린 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을 댔다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찌보면 위기속에서 국가의 수명을 20 세기 초까지 연장시킨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김형중 2010, 63). 우리는 서태후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그녀가 누린 권력의 정도와 한계를 고려하여 각기 사안에 따라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녀에게 지울 수 있는 비난과 책임의 범위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는 원인과 책임을 그 시대를 살아낸 특정 개인에게 오롯이 전가하는 단순한 논리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화원에서의 발제를 마친 후 사랑방 학우들과 함께

참고문헌

- 김용욱. 2008. <淸日戰爭 露日戰爭과 朝鮮海洋에 대한 制海權>. 법학연구. 279-330.
- 김형중. 2010. <근대중국의 황제권력: 광서제와 서태후>. 역사학보. 208 호, 35-70.
- 량치차오. 2013. 《리홍장 평전: 중국 근대 대사상가 량치차오, 동시대 실권자 리홍장을 말하다 (원제: 李鴻章評傳)》 박희성, 문세나 역. 서울: 프리스마.
- 이종호. 2015. <청일전쟁의 개전원인과 청과 일본의 군사전략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Vol. 77.
- 조한승. 2006. <상대적 국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일전쟁 (1894~95)>. 강성학 편.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중일전쟁의 국제정치와 군사전략-》.91-136.
- 劉中民. 2013.《중국 근대 해양방어 사상사 (원제: 中國近代海防思想史論)》. 이용빈 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Chang, Jung. 2013. “Empress Dowager Cixi: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Upton, Emory. 1878. "The Armies of Asia and Europe. Embracing Official Reports On the Armies of Japan, China, India, Persia, Italy, Russia, Austria, Germany, France, and England. Accompanied by Letters Descriptive of a Journey from Japan to the Caucasus." New York: D. Appleton & Co.

Rawlinson, John L. 1967. "China's struggle for naval development 1839-1895". Harvard University book press.

Paine, S.C.M. 2003.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간서치의 세상 읽기 _유리창

이새라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우리가 유리창을 찾은 것은 답사의 둘째 날 저녁, 뉘엿뉘엿 해가 져가던 때였습니다. 바로 전에 방문했던 이화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함과 풍족함이 이런 것이 구나를 느낀 저는 청나라 때 가장 번성했던 거리, 모든 문화와 물건, 사람이 모였던 거리인 유리창의 모습이 기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은 것은 어둠이 내려앉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쯤 된다는 그 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서만 옛날의 모습을 간직한 채 인적이 드문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이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랑방 선배들이 언급했다시피 청나라 때의 유리창은 너무 화려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유리창은 당시

연행을 위한 한중 문화교류의 중심이었고, 청조 출판문화의 중심이었던 동시에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유가 이루어지는 공간, 다양한 시사들이 운집 해 있던 북경 제 1 의 상업공간이기도 했습니다(정민 2013, 21). 제가 이 유리창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지식인, 이덕무였습니다.



▲ 생각보다 황량했던 유리창 전경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덕무라는 이름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덕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박지원, 박제가, 유득공 등의 북학파와 친구였던 것을 알고 있거나 뛰어난 문장가로서의 이덕무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덕무는 박제가와 함께 연행을 갔던 조선의 청년 중 한명으로 박지원, 박제가와 함께 북학의 꿈을 키워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덕무가 북학파로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청나라를 다녀온 기록인 “입연기”에서 청나라

문물에 대해 제한적 관심을 보이거나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이덕무는 누구보다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도 조선을 사랑했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한 개혁가이자 정당한 북학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입연기 내내 그의 친구들과는 다른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는 친구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덕무의 생애; 책 바보의 탄생

이러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 저는 먼저 이덕무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덕무의 어린시절은 서얼, 가난 그리고 책과의 운명적 만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덕무는 1741년 영조 17년에 서울 중부관 인방 대사동, 현재 인사동 4가에 있는 본가에서 아버지 이성호와 어머니 반남 박씨 사이에서 2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이광규 1978, 321). 전주 이씨의 33대손으로 왕족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나 아버지가 서자였던 까닭에 평생에 걸쳐 서얼의 비애를 느껴야 했던 이덕무는 39세가 될 때까지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환경은 일종의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것은 쓰일 데가 없다는 것이다. 책만 파고들면 무엇하나? 내 말과 글로는 세상을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하는 것을. 몸을 움직여 할 줄 아는 일이 무엇이던가? 고작 종이를 묶어 책을 만들거나 밀랍으로 윤회매를 만드는 것뿐.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안소영 2004, 185).

게다가 가정형편까지 넉넉한 것이 못되어서 박지원이 써준 이덕무의 글 모음집 청장관전서의 서문을 보면 이덕무의 집은 무너질 듯 해서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고 변변치 않은 음식조차 자주 때를 걸러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덕무에게 좋은 스승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은 사치였을 것입니다(권정원 2007, 421). 따라서 이덕무는 자연스럽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덕무에게 책이란 생계와 직결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이덕무는 39 세 이전까지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선택한 것이 책을 옮겨 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권정원 2015, 332). 평범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글 솜씨를 뽐내며 살았을 이덕무가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은 비참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에 들어오는 청의 책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 유리창 방문 후 식당에서 발표하는 모습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책 바보, 그러니까 간서치(看書癡)는 26 세 때 백담 근처 대사동으로 이사가면서 근처에 살던 이른바 북학파와의 교제를 시작합니다(권정원 2007, 417). 이서구, 유득공, 박지원, 박제가 등 이덕무가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친구들과 함께 그는 비슷한 처지와 술을 나누며 북학의 꿈을 키웁니다. 이후 박제가와 함께 연행을 가거나 연암이 이덕무의 책에 서문을 써주고(아정유고 8 의 서), 이덕무가 다시 박제가의 글에 서문과 해설을 붙이는 인연(친애지기서)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것이지요.

39 세 이후 연행에서 돌아온 이덕무는 드디어 정조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나서게 됩니다. 외각 검서관 등의 직무를 맡으면서 무예도보통지 등의 성과를 남긴 그는, 관직에 있는 내내 규장각 팔경시, 20 운 배울시 등을 지어 경합에서 1 등을 도맡아 하며 정조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1795 년 이덕무가 53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덕무의 아들인 이광규에게 “지금 운서를 새로 간행하면서 예정일을 떠올려 보니, 처음 이 책을 간행할 때 애쓴, 죽은 이덕무의 재주와 식견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다. 각신에게 명하여 이덕무 본가에서 그가 남긴 글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문집을 간행하게 하라(권정원 2004, 5)”고 명했고, 이것이 ‘청장관전서’가 되어 우리가 아직도 이덕무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가감정의 유리창 방문기

그렇다면 이덕무는 유리창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의 입연기를 보면 그가 왜 북학파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덕무의 유리창 방문기를 세 개의 장면으로 요약하고 그 장면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이덕무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서점가와 서적을 대하는 장면입니다. 소문난 간서치답게 이덕무는 책방과 책을 볼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문조의 유리창 서사기에 따르면 당시 유리창에는 30곳 이상의 서점이 있었고, 이 서점들은 대부분 새로운 서적을 취급하였는데 이덕무가 즐겨가던 오류거, 문수당 등은 고서도 함께 취급하여서 희귀한 책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정민 2013, 98).



▲ 유리창 입구에 있는 중국 서점

이덕무의 서점가 사랑은 박지원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문을 나서서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유리창 찻 거리에 닿으니 오류거라는 석 자 문패가 눈에 띈다. 이곳이 바로 도옥 책방으로서 지난해에 이덕무 일행이 이 책방에 와서 책을 많이 샀다고 하여 오류거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들었던 터라 이제 이곳을 지나려니 무슨 구면 친구나 만난 듯 했다(박지원 2014, 406).”고 남겨 놓았을 정도로 유리창의 서점가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고 간증하듯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덕무가 책방들을 들르고 책을 열람하면서 느꼈던 감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책방과 서적의 규모로 청나라 문물의 번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덕무의 입연기에서는 청나라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사실 유리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기록이 종종 있습니다.

북학파의 일원답게 이덕무 역시 청나라의 배를 만드는 기술이나 바퀴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이를 배워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얼핏 드러냅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들어서자 이덕무의 모든 관심은 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책을 통해 청나라 문물의 부유함을 깨달은 그는, 책을 통해 청나라를 배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찍이 천애지기서에서 조선에 들어오는 책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아쉬워했던 이덕무는, 청나라에 많은 책이 있는 것, 특히 희귀한 의학, 약초, 농업 서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과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이덕무가 유리창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바로 서점마다 다니면서 조선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책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외잡스러운 책을 제외하고” 중요한 책, 자신이 관심 있는 책만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유리창을 거니는 학우들의 뒷모습

그가 남겨놓은 책들의 대부분은 이미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게 많지만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그의 관심은 청나라 정치(지신록 등), 명문(정의고, 대경당집 등), 약초(본초경소, 본초회), 무예(병법전서, 형천무편 등), 의서(본초유방 등), 고증학(의문독서기 등), 농업(왕씨농서 등) 등 청나라의 문화와 지식, 역사까지 담고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이 책들을 필사적으로 읽어낸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듯 책을 통해 처절하게 청나라를 배워내고 이를 통한 조선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덕무의 심상은 여전히 승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장면에 걸쳐서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조시별재집 어제서를 읽으며 “본조에 살면서 망령되어 전조인 명나라를 생각하는 자는 난민이니 국법이 있다. 명나라 달관의 신분이었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본조를 섬긴 자를, 비록 일시의 권도로 국가가 초창하는 시기에 있어 버리지 못할 바나, 요는 옳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이덕무 1978, 240).”고 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수역관 이언용이 구한 어제전운시(御製全韻詩)를 읽으며 나덕헌과 이괄의 일을 “조선이 청을 섬기자 나씨, 이씨가 복종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둘이 후금이 보낸 국서에 후금의 왕을 황제라 칭한 것을 보고 그 글을 버리고 온 일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이 이러한 대절을 알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은 그의 이러한 심상을 잘 보여줍니다(이덕무 1978, 257).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청나라 문인들과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이덕무가 책을 읽는 것만큼 좋아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일상은 연행 중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특히 친하게 지낸 것은 반정균과 축덕린, 심영, 목장, 당원항 등 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문장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덕무가 그들과 나눈 대화가 문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덕무가 가장 열을 올린 것은 경전의 해석이나 서로의 문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그는 예법과 명물학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 사귄 친구들을 통해 청나라를 배우려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청나라 문물과 문화에 대한 이덕무의 물상과 심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덕무는 유리창에 도착한 이후 청나라의 물상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있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점가의 번성이나 책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예법과 이국적인 문화를 대하는 이덕무의 심상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안문에 가서 태학에 배울 때에 명나라 때의 황제칙수문묘비(皇帝勅修文廟碑)를 고쳐 쓰고 문 옆마다 만주 글자를 써 놓은 것을 보고 “오랑캐의 글자를 어찌 성현의 신판에 썼단 말인가?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신판에 편히 머물지

않으리라(이덕무 1978, 241)”며 부정적 감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청나라의 현판을 보고서는,

준 2 개에는 목지를 꺾어 놓았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금으로 쓴 긴 주련이 기둥에 걸려서, 마치 신사나 불우의 모양과 같으니, 성인께서 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유자와 주자를 십철의 열에 올려 놓았으니, 이 역시 문구 놀음에 불과하므로 전우가 넓고 크며 아름다운 색채가 찬란하니, 고상하고 바른 것이 못 된다(이덕무 1978, 241).

라며 청나라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토아산을 방문했을 때도 산 위의 전각이 열황(명나라 마지막 황제)이 순사한 곳임을 떠올리며 슬픈 생각을 금하지 못합니다(이덕무 1978, 253).

간서치, 책으로 세상을 보다

제가 만난 이덕무는 박제가 만큼이나 청나라를 배우고 싶어했고 박지원만큼이나 국제정치적 감각이 있는, 북학파의 정당한 일원이자 조선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가 조선을 바꾸려는 개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덕무가 제한적인 개혁성과 보수적인 물상을 유지했던 이유를 저는 그의 타고난 성품과 서얼이라는 환경에 의해 학습된 무력감에서 먼저 찾고자 했습니다. 이덕무는 스스로에 대해 집필한 이목구심서에서 오랫동안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했더니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말을 해도 바뀌는 것이 없는데 왜 말을 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덕무가 느낀 조선이라는 사회는 서얼인 자신이 아무리 바꾸고자 해도 바뀌지 않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그가 명나라에 대한 심상을 물상과 비슷한 위치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타 북학파의 여행기를 살펴보면 그들 역시 압록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이덕무와 비슷한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심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청나라로 건너가서 그들의 경제가 발전한 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 인지로 생각이 발전하게 되어 이전의 심상을 마음 한 켠에 접어 두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청나라의 변성이라는 물상을 대하는 마음이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심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덕무는 어린 시절 가난을 심하게 겪은 탓에 물상에 의지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있었다 없어지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 것입니다.

최상의 사람은 가난을 편안하게 여긴다. 그 다음 사람은 가난을 잊어버린다. 최하등의 사람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해 감추거나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을 호소하다가 가난에 짓눌려 끝내 가난의 노예가 되고 만다. 또한 최하등보다 못한 사람은 가난을 원수처럼 여기다가 그 가난 속에서 죽어간다(이덕무 1978, 211).

이러한 습관은 청나라의 문물을 대하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청나라 문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이덕무는 청나라와 조선이 반드시 같은 환경에 있지않고 따라서 청나라의 문물이 조선에 무조건적으로 유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조선의 변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일 따름이고 조선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 중원만 모두 옳겠는가? 비록 도회지와 시골의 구분은 있을 망정 모름지기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이덕무 1978, 263).

하지만 이덕무가 보기에도 청나라 문물 중 조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문물을 조심스럽게 배우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앞선 희귀 도서 목록이 그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으로 세상을 보는 눈 역시 탁월했습니다. 그가 쓴 “청령국지(이덕무 1978)”는 일본의 역사, 가계도, 문화, 생활 심지어 지도까지 일본의 전체를 담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이 자가 언제 일본을 다녀갔나?”고 물은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이런 저런 책들을 보고 배운 것을 다시 책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배운 간서치 이덕무. 그의 방법은 옳은 것이었는지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었는지는 이덕무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북학파에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역시 북학파로써 시대를 살아가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이덕무. 1978. 《청장관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정민 외. 2013. 《북경유리창》. 서울: 민속원.
- 임기준. 2014. 《연행록 연구총위》. 서울: 학고방.
- 하영선. 2011. 《역사속의 젊은 그들》. 서울: 을유문화사.
- 이덕무. 2011. 《책에 미친 바보》. 권정원 역. 서울: 미다스 북스.
- 전홍석. 2006. 《조선후기 북학파의 대중관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 박지원. 2014. 《열하일기》. 리상호 역. 파주: 보리.
- 권정원. 2007. “이덕무의 가계와 교우관계” <한문학보> 17
- 권정원. 2015. “이덕무의 명칭문학에 대한 관심의 변화 양상”
<동방한문학> 65
- 안소영. 2005. 《책만 보는 바보》. 파주: 보림.

마오와 스탈린의 만남, 그 꿈꾸이의 시작 _마오쩌둥 기념당

김호인

한국의국어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10기 답사 마지막 날의 시작은 마오쩌둥 기념당이었습니다. 중국헌법에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권위를 보여주듯 새벽부터 곳곳에서 올라온 중국인들이 줄을 서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관이었습니다. 긴 시간의 대기 끝에 들어선 마오쩌둥 기념당 한가운데에서 이 유명한 혁명가의 모습을 실제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보존 처리한 채로 안치된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의 시신은 다소 현실감이 없었지만, 그가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신은 그 어떤 책에서 읽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오쩌둥 기념당은 천안문 광장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문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현재는 그의 초상화만 걸려있지만,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및 스탈린의 초상화도 함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스탈린(J. Stalin)은 실제로 마오쩌둥과 만난 인물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그들 마음 속의 꿈뽕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답사에서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 1950 년의 마오는 아시아의 티토가 되지 않았는가

1949 년 10 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2 월 동아시아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의 주석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국제정치 권역을 이끌고 있던 스탈린의 70 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로 1950 년 2 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10 년간 지속되는 중국의 소련에 대한 ‘일변도 정책’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내전이 마무리되어 가던 1948 년 말 미국 국무부의 분석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마오가 티토보다 열 배 가까운 세월 동안이나 권력을 누려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모스크바는 중국공산당을 완전히 소련 지배하에 두기 위해 애써야 할 엄청난 과제에 당면해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의 티토(J. B. Tito)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착오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8년 6월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통치자인 티토는 스탈린과 관계를 단절 하였으나, 곧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소련의 충실한 동맹국이었던 유고의 이탈은 공산권 국가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안겨주는 한편, 냉전적 질서에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티토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스탈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코민포름의 정통성에 유고를 예속시키려는 스탈린의 시도는 그를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마오 역시 티토의 전철을 밟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어 마음을 놓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냉전이 구조화되고 있던 그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대한 일변도를 제창하고 공산주의 진영에 들어가며 중간노선은 없다고 기치를 선명하게 내세웠습니다. 스탈린 역시도 1949년 7월, 베이징에서 온 중국 사절단에게 아시아에서의 분업을 제안하며 미국이 염려하던 ‘제 2 전선’을 제안했습니다(존 루이스 개디스 2010, 55-63).

그렇다면 마오는 스탈린과의 만남에서 왜 티토와 다른 결론을 가지고 귀국했는지에 대해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2 전선’의 형성이 냉전시기에서 최초의 열전이자 한국 국제정치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외시되어왔던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초기의

마오 심상을 중심으로 그 계기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마오쩌둥의 저술 및 연설과 우드로 윌슨 센터의 ‘Making of the Sino-Soviet Alliance’ Collection 등의 1 차 자료에 기초하여 그 원인을 추적해보고자 했습니다.



▲ 마오쩌둥 기념당 관람을 마치고

항일전쟁 전후 중국의 대표권 문제

마오가 처음부터 스탈린의 대화상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5 년 행정원장에 취임한 이래 장제스(蔣介石, Chiang Kai-Shek)는 중국 국민정부의 외교권을 장악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대 강대국’ 가운데 하나라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제도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공산당 세력의 증대는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가와시마 신·모리 가즈코 2011, 117-137) 이미 한차례의 국공내전을 치른 바 있는 마오의 공산당은 장제스가 행사하고 있던 중국에 대한 대표권을 거부하고자 했죠. 홍군의 독자적 통수권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1945 년 장제스는 공산당의 군대에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당연히 마오는 이를 내전을 위한 시도로 간주하고 거절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전개하는 논리의 근거가 당시의 국제규범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1945 년 8 월 13 일의 신화사 논평에서는 주더 총사령관의 명령은 바로 “일본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계속한다.”는 포츠담선언 제 2 조의 규정을 단호히 실행에 옮긴 것이고, 장제스는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우리는 전국의 동포와 전 세계 인민들에게 선언한다. 중경의 통수부는 중국인민과 중국의 진정한 항일부대를 대표할 수 없다. 중국인민은 중국해방구의 항일부대가 주더 총사령의 지휘 하에 직접 그 대표를 파견해 4 대 연합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일본을 군사적으로 관리하는 데 참가할 권리를 지니고, 또 앞으로 열릴 강화회의에도 참가할 권리를 지니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중국인민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오쩌둥 2008, 31-32).

1945년 8월 16일 장제스에게 보내는 전보에서도 마오는 자신의 견해가 영국이나 미국, 소련 등 각 연합군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오 쩌둥 2008, 39). 이러한 일련의 담화적 행위를 통해 그는 중국공산당이 가지는 국제적 ‘정당성(Legitimacy)’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내전 초기부터 나타난 마오의 친소노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5년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중일전쟁이 마무리되는 기미가 보이자 또다시 국공 내전의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마오는 이미 소련을 잠재적 파트너로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국의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혁명역량이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각을 자주 표출하는데, 이중 국제적 요인은 각국 인민들과 더불어 강대국 정치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정치의 원동력은 지도적인 국가 사이의 권력 배분(극성), 강대국 간의 우호와 적의의 유형, 강대국의 참여와 개입의 정도, 안보 수준에 대한 강대국의 특정한 사회적 성향 등으로 구성됩니다(베리 부잔·레네 한센 2010, 103). 마오는 냉전 초기 세계적인 세력균형이 미국과 소련의 양극으로 나뉘고 있는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일전쟁의 종결에 있어 소련의 군사적 기여를 평가하고 다가올

국내적 투쟁에 있어서 그 영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1945년 8월 13일 연안 간부회의 연설에서 마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소련이 출병하고 붉은 군대가 침략자를 몰아내고 있는 중국인민을 도와주러 왔는데, 이것은 중국역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다. 이 일에서 비롯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미국과 장개석의 선전기관은 2개의 원자폭탄으로 붉은 군대의 정치적 영향을 없애 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없애버릴 수 없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자폭탄으로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다.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항복시킬 수 없었다. 인민의 투쟁이 없으면 원자폭탄 단독으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원자폭탄으로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째서 또 소련에 출병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어째서 원자폭탄을 2개나 떨어뜨려도 항복하지 않던 일본이 소련이 출병하자 곧 항복했겠는가? 우리 동지들 중에도 원자폭탄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마오쩌둥 2008, 26)

냉전 초기 미소간의 적의는 권력적 배분상태와 더불어 이념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부분이 상당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념의 차이가 상대방의 권력자원에 대해 느끼는 위협을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자처하는 마오에게도

국제정치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의 싸움을 넘어선 이데올로기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념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련의 지원을 모색하고자 했죠. 마오는 위의 연설에서 주어진 정세에 대응하는 방침으로 자력갱생과 반제국주의 세계 연대를 제시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호적이고 비침략적인 민주주의-자본주의 열강과 그렇지 않은 국가를 뚜렷이 구별했습니다(에드가 스노우 1985, 124). 마오는 이러한 구분법 하에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를 장제스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예속화하고자 하는 존재로 주장하죠. 1946 년 노비코프(N. Novikov)의 보고서처럼 상대방을 팽창주의 국가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마오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소련에 대해서 적극적인 친선 노력을 펼친 것입니다.

나아가 마오는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일 참여와 개입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았기에 친소노선은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소련의 과도한 군사적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지리적 인접성에서 비롯되는 안보적 위협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념적 우호에 근거한 소련과의 동맹 추진은 그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공내전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국지전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강대국들 역시 곧바로 제 3 차 세계대전에 돌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45 년 10 월 17 일, 마오는 충칭 협상에 관한 연안 간부회의 보고에서 그러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런던의 5개국 외상회의가 실패했지만, 이것으로 곧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방금 끝났는데 어떻게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는 많은 국제문제에서 여전히 타협할 것이다.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소·반공전쟁에 전 세계의 무산계급과 인민이 모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30년동안 세계대전이 두 번 일어났는데, 제 1차 대전과 제 2차 대전 사이에 20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다. 50만 년의 인류 역사상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이 30년간뿐이다.

(마오쩌둥 2008, 59)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마오와 스탈린의 관계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코민테른을 대표해 왕밍이 제기한 ‘모든 것은 통일전선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전술과 마오가 제기한 ‘항일민족통일전선에서 자주적, 독립적 입장’을 요구하는 전술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항일전쟁 시기에 마오가 중국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제기한 자주독립 노선은 국민당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 아니라,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휘부를 겨냥한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42년 2월 옌안에서의 정풍운동, 당의 형식적인 지시, 교조주의의 반대에서부터 1945년 4월의 중국공산당 제 7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마오쩌둥 사상이 제기될

때까지의 목표 중의 하나는 당 내에서 소련세력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선즈화 2010, 81-82).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협이 약화되자, 마오는 국제적으로 친소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련이 중국 공산당 세력의 독자노선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죠.

1946 년 4 월이 되면 마오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밀 문서에서 미국·영국·프랑스와 소련과의 관계는 타협이나 결렬이나 하는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마오쩌둥 2008, 83). 이처럼 미국과 소련이 직접 개입하는 전면전의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그에게 남은 시나리오는 양국의 대리전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갈등과 경쟁의 무대가 어떠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지였습니다. 중국의 독자적 외교정책 노선으로서 중간지대론은 1958 년 이후로 표면화되지만,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중간지대론은 이미 1940 년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마오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에드가 스노우가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중국 고전에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에드가 스노우 1985, 112). 때문에 마오가 가지고 있던 공간 개념은 전통적인 중화질서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간지대 개념은 전통천하질서의 동심원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황복의 오랑개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된 오복의 천하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지대의 국가는 중심부의 소련으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1946년 8월 6일, 그는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담화에서 미국이 중간지대를 먼저 굴복시켜 반소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매우 광활한 지대를 사이에 두고 있고, 거기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주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동파가 이러한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전에는 도저히 소련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태평양에서 전에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전 세력범위보다 더 큰 지역을 지배하고, 일본,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과 조선의 절반, 남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있고, 나아가 대영제국과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구실 하에 많은 나라들에서 대규모적인 군사배치를 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동파는 그들이 세계 각지에 이미 설치해 놓았거나 설치하려는 군사기지는 모두 소련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말대로 이러한 군사기지들은 소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맨 먼저 미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이 나라들입니다.

(마오쩌둥 2008, 93-94)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계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국제체제에서 중국 역시 중간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미국의 친선

세력으로서 장제스의 국민당은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준하는 지위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외관 속에서 미국의 존재는 국민당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마오에게 굉장한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오는 소련 역시 공통의 안보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의 지속적인 친소노선 견지는 결국 그가 창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때의 안보는 국가 내부적 투쟁과 외부적 투쟁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혁명’의 기치는 중국 공산당 해방구의 내부적 결속을 다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봉쇄 대상이 되는 정체성이자 소련의 지원을 구하기 위한 정당성의 요소였습니다.



▲ 마오와 스탈린의 공공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랑방 학우들

다시 말해, 1946 년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던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 ‘혁명’은 안보추구를 위한 병행적 개념이었

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성공을 정치·군사적으로 뒷받침해줄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권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 균형을 통한 ‘자력구제(Self-help)’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적 균형화 기제로서 같은 권역 내의 소련과의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이죠.

국공내전을 대하던 미소의 태도

국제정치는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에, 마오의 대외관만 가지고는 당시 중국을 둘러싼 대외관계의 양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국공내전을 바라보는 미국과 소련의 태도는 이후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략하게 양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국민당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중국이 국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일본이 점령하여 통치하던 지역을 중화민국 정부가 인수하도록 하고 국민당 주도의 ‘국공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국가이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협력국가로 삼기로 구상했습니다. 실제로 1946 년도에는 미국의 조정 아래 국공내전이 잠시 소강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만주에서 철수함에 따라

만주를 둘러싼 국공대립이 격화되었고, 미국도 1947 년에 접어들면서 조정자 역할을 단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가와시마 신·모리 가즈코 2011, 148). 1946 년 9 월 29 일 마오와 미국 기자 스틸의 담화를 보면 미국의 조정이 국민당 원조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책의 진의는 의심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마오쩌둥 2008, 103-105).

소련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자료를 검토해도 1947 년까지 소련의 공식적인 대외문건은 국민당 정부를 주요 교섭대상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궁극적 목표는 극동지역에서 알타협정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여 러시아가 러일전쟁으로 상실한 중국에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이념적인 문제는 기껏해야 스탈린이 국민당 정부와 외교 문제를 처리하는데 하나의 정치적 수단일 뿐이었습니다(선즈화 2010, 88). 소련군의 동북지방 진주가 공산당의 근거지 마련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스탈린의 전략적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전의 전세가 변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장제스와의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에게 있어 ‘혁명’이란 안보의 보완적 개념에 불과했죠.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안겨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의 시기: 1947~1948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소련의 방임적 태도는 1947년을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 내부적인 상황의 변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죠. 1946년 9월 16일의 중국공산당 당내 지시문을 보면 항일 시기에 진행했던 유격전 중심의 전술을 우세한 병력을 집중시켜 적을 각개 섬멸시키는 운동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마오쩌둥 2008, 97-100). 지역이 아닌 병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1946년 10월 1일 당내지시문의 내용을 보건대 비록 공산당 측의 출혈도 상당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황은 더욱 진전되어 1947년 2월 1일에는 중국의 시국이 전국적 범위 반제·반봉건 투쟁에서 새로운 인민대혁명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선언하게 되고, 동년 5월 20일 신화사 논평은 장제스 정부가 이미 전 인민에 포위되어 있음을 주장합니다(마오쩌둥 2008, 106-132). 물론 이 과정에서 장제스 측의 서북지방 진격으로 수도였던 옌안이 함락되는 위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선의 확장은 국민당 측에게 군사적 부담의 증가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들이 서구외신들에 의해 모스크바에는 잘못 전달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7년 6월 15일 스탈린은 중국에서 머물고 있던 의사 테레빈을 통해 마오쩌둥에게 모스크바 비밀회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합니다 (Woodrow Wilson Center 1947). 마오쩌둥의 통역 겸 비서였던 스저의

기억에 의하면, 실제상황은 스탈린이 서방 통신사의 보도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대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고 허룽, 심지어는 마오의 부인인 지양칭 같은 고위 간부들까지 포로가 되어 시안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소련이 먼저 주도적으로 전용기를 파견해 마오와 다른 고위 간부들을 소련으로 데려갈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선즈화 2010, 88). 그러나 실제 정세는 보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스탈린은 모스크바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Woodrow Wilson Center 1947).

이 무렵부터 중국 공산당은 내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산당 해방구 내에서의 운동전에 머물지 않고 공세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1947년 9월 1일 발표한 해방전쟁 제2차년도의 전략방침에서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나죠.

아군의 제2차년도 작전의 기본임무는 전국적 반격에 나서는 것, 즉 주력을 동원해 외선으로 진출해 전쟁을 국민당의 지역으로 끌고 들어가 외선에서 적을 대량으로 섬멸시키고, 전쟁을 계속 해방구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해방구의 인력과 물자를 더욱 파괴하고 소모시켜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국민당의 반혁명적인 전략방침을 철저히 분쇄하는 것이다. 아군의 제2차년도의 작전의 부분적인 임무는 일부의 주력과 많은 지방부대를 동원해 계속 내선에서 싸워 내선의 적을 섬멸시키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마오쩌둥 2008, 135)

얼마 후 1947년 10월 10일에 발표한 중국인민해방군 선언에서는 중국공산당의 8개 항목의 기본정책을 공포하고,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46년 소련군의 철군 이후로 만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련은 중국 공산당과 제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1947년 12월 16일 스탈린은 전보를 통해 소련 방문을 요청한 마오에게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 시기는 다음 해인 1948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루어지는 테레빈의 보고에 따르면, 마오는 오랫동안 소련 방문의 염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Woodrow Wilson Center 1947). 해당 보고에서 소련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오와 스탈린 만남의 조율

마오와 스탈린의 만남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8년은 역사적 만남을 위한 조정기였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일련의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중국의 첫 번째 외교노선으로서 ‘대소일변도’ 정책이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중국 공산당 창건 28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된 6월 30일의 인민민주주의독재론이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마오는 소련과 연합하고, 각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연합하고, 그 밖의 여러 나라의 무산계급 및 광범위한 인민과 연합하여 국제적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대외노선을 천명합니다.

‘당신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바로 그렇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손중산의 40년간의 경험과 공산당의 28년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승리에 도달하고 승리를 굳히려 한다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다. 40년과 28년 동안 쌓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은 제국주의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사회주의 쪽으로 치우치게 되며 여기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이쪽저쪽에 붙어 태도가 일정치 않은 것은 통용되지 않고, 제 3의 길은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 쪽으로 치우친 장개석 반동파에도 반대하고, 제 3의 길에 대한 환상에도 반대한다.

(마오쩌둥 2008, 395)

이때, 중국의 ‘국가안보’ 논리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게 지워지는 위협의 지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베리 부잔·레네 한센 2010, 103). ‘우적개념’에 따라 형성되는 안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중국 내전에서 승리로 자신의 존재가 굳어지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도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948년 이후로 오히려 소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의 소련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세계 정책을 있어서 중국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평가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동아시아에서 두 나라의 동맹 관계는 1950년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두 국가의 신뢰 관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여러 차례 이들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고, 한국전쟁 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나오며: 냉전 초기 공산주의 국제정치의 3중 시각

마오와 스탈린을 비롯하여, 공산권 지도자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가진 시각은 기본적으로 ‘무정부성의 권력 정치적 시각, 공산주의 국제혁명의 세계체제적 시각, 국내적 혁명역량의 시각’이라는 3중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무정부성의 권력 정치적 시각이라고 함은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가 가하는 구조적 압력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 국제혁명은 그 권역 안에서의 영향력으로 이후 소련의 지도력과 중국의 도전이라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세계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해당 요소 역시 체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적 혁명 역량은 레닌이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세계 혁명은 중간단계로서 국가의 수준에서 프롤레타리아적 권력 수립을 거쳐야 하기에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3중의 요소는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는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

초기에는 미국과 소련 양극의 강대국이 자국의 정통성을 이념에 기초하여 구축하고 있었죠. 따라서 국내적 혁명역량 증대를 무정부성의 권력정치에서 기본적 생존과 연계시켰고, 공산주의 국제혁명의 소련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위상을 어느 정도 정립한 이후에는 국내적 혁명역량을 공산주의 국제혁명에서 지위 확보와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미국과의 데탕트를 모색하면서 이념과 권력 정치를 일정 정도 분리시키는 정책을 보였죠. 그러나 데탕트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가 공동성명의 문안에 “인민의 혁명”이라는 문안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점을 볼 때, 완전한 분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9 년에서 1950 년으로 넘어가는 스탈린과의 만남에서 마오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경제적 원조 및 소련 모방이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 초기 공산주의 국제 정치권역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 수립 초기의 중국은 내부적 안보 충족이 선행과제였습니다. 국민당 정권 역시 대만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부적 혁명역량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국가 전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험을 하기보다는 대국 중에서 유일한 성공 모델이었던 소련의 ‘혁명 역량’이 자국에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소련도 인정하다시피 중국의 혁명이 가진 독자적 성격에 따라 변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공산권 내에서 소련이 가지는 지도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용하고 따라가는 대소일변도 노선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마오가 아시아의 티토가 될 것이라는 미국의 결론 자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중 소련대사였던 로신조차도 “소련이 중국의 내전 중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마오쩌둥이 아시아의 티토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즈화 2010, 108). 왈트(S. Walt)가 정의하는 것처럼 ‘위협(Threat)’의 요소를 ‘총체적 권력’, ‘군사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의도’으로 나누어보아도 동북지역과 신장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소련이 미국보다 더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민당에게 원조를 하고 있을 뿐, 중국 본토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왈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는 동맹을 공고화시킬 수는 있어도 동맹 형성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산주의권 국제정치는 단순히 서구적인 권력정치 개념만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는 공격적 의도라는 변수 자체가 이데올로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적 혁명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와의 협력 제고가 절실할 수 있었죠. 이번 답사를 준비하면서 서구적 국제정치학의 분석을 보완하고자 마오와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국제정치적 인식론을 추적하여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마오에게 있어서 스탈린과의 만남과 중소우호동맹 조약의 체결은 공산권의 국제적 협조를 통해 국내적 혁명역량을 제고하여 권력정치 속 생존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국내 공산주의 혁명 기틀 확보 이후에 ‘혁명’은 안보의 병행적 개념에서 보완적 개념으로 진화해나갔습니다.



▲ 마오쩌둥 기념당을 나오며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시진핑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천명해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 중국 지도부의 대외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번쯤 반드시 해보아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당대의 프로파간다를 걷어내고 마오쩌둥의 글 속에 남아있는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냉전 초기 중국 역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부렸다는 절실함은 2018 년의 저에게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지켜보고 있는 마오쩌둥 사진이 천안문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그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참고문헌

- 가와시마 신, 모리 가즈코. 2011. 《중국외교 150 년사》. 이용빈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마오쩌둥. 2008. 『모택동 선집 제 4 권』. 김승일 역. 서울: 범우사.
- 베리 부잔, 레네 한센. 2010. 『국제안보론』. 신옥희, 최동주, 이왕희,
황지환 역. 서울: 을유문화사.
- 션즈화.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 에드가 스노우. 1985., 『중국의 붉은 별(상)』. 홍수원, 안양노, 신흥범
역. 서울: 두레.
- 존 루이스 개디스. 2010. 《냉전의 역사》. 정철·강규형 역. 서울: 에코
리브르.
- Cable, Stalin [Kuznetsov] to Mao Zedong [via Terebin], " June 15, 194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rkhiv
Prezidenta Rossiiskoi Federatsii (APRF), Fond (F.) 39, Opis
(Op.) 1, Delo (D.) 31, List (L.) 23. Reprinted in Andrei
Ledovskii, Raisa Mirovitskaia and Vladimir Miasnikov,
Sovetsko-Kitaiskie Otnosheniia, Vol. 5, Book 1, 1946-

February 1950 (Moscow: Pamiatniki Istoricheskoi Mysli, 2005), p. 327. Translated for CWIHP from Russian by Sergey S. Radchenko. Published in CWIHP Bulletin #1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292>.

Cable, Stalin [Kuznetsov] to Mao Zedong [via Terebin], July 01, 194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PRF: F. 39, Op. 1, D. 31, L. 24. Reprinted in Andrei Ledovskii, Raisa Mirovitskaia and Vladimir Miasnikov, *Sovetsko-Kitaiskie Otnosheniia*, Vol. 5, Book 1, 1946-February 1950 (Moscow: Pamiatniki Istoricheskoi Mysli, 2005), p. 333. Translated for CWIHP from Russian by Sergey Radchenko.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294>

Cable, Stalin [Kuznetsov] to Mao Zedong [via Terebin], December 16, 194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PRF: F. 39, Op. 1, D. 31, L. 25. Reprinted in Andrei Ledovskii, Raisa Mirovitskaia and Vladimir Miasnikov, *Sovetsko-Kitaiskie Otnosheniia*, Vol. 5, Book 1, 1946-February 1950 (Moscow: Pamiatniki Istoricheskoi Mysli, 2005), p. 378. Translated for CWIHP from Russian by Sergey Radchenko.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296>

Cable, Terebin to Stalin [via Kuznetsov], December 17, 194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PRF, F. 39, Op. 1, D. 31, L. 26. Reprinted in Andrei Ledovskii, Raisa Mirovitskaia and Vladimir Miasnikov, *Sovetsko-Kitaiskie Otnosheniia*, Vol. 5, Book 1, 1946-February 1950 (Moscow: Pamiatniki Istoricheskoi Mysli, 2005), p. 378. Translated for CWIHP from Russian by Sergey Radchenko.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17>

거울과 망치, 중국현대미술

_798 예술구

나태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들어가며

예술은 사회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주도하며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한 사회가 가지는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거울이며, 향후 나아갈 미래와 방향성을 예측하고 선도해간다는 점에서 망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현대미술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과 망치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현대미술은 제국열강의 침략, 사회주의 혁명과 신중국 건립 후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노선 실험,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 등 숨 가쁘게 전개되어온 중국의 격변의 20세기를 반영할 뿐 아니라 1930년대 루쉰의 목판화 운동에서 1979년 싱싱화회(星星画会)의 결성, 85신조미술운동(85' 新潮美术运动), 1989년 <89'중국현대미술전(89' 中国现代美术展)> 등의 선도적 사건들에서도 잘 알 수 있듯 각각

정치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며 선도해왔습니다.

한편 1949년 이후 상하이와 함께 신중국 미술 정책의 산실이자 그 예술적 성과물의 집결로서 역할을 해온 수도 베이징(北京)은 800년 고도로서의 자부심과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영감의 원천을 기반으로 예로부터 많은 우수한 예술 천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습니다. 많은 중국현대미술의 대표선수들이 이 도시에서 배출되었으며 여전히 이곳에서 작업하며 세계주류미술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징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따산즈(大山子)’ 혹은 ‘798 예술구(798 艺术区)’라 불리는 곳은 중국현대미술의 변천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원래 1950년대 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군수공장 단지였던 이곳은 가난한 예술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중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98 예술구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전통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복합 공간으로서 ‘중국의 소호’라는 별칭과 함께 중국 미술의 심장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798 예술구가 공간으로서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상징한다면 그 양분을 먹고 자라난 개인 예술가의 삶과 작품 세계 또한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술가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가 속하는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대변인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술가는 그가 속하는 시대의 성격과 가치관에 형태를 부여하고,

반대로 그 시대의 성격과 가치관은 예술을 형성합니다(Jaffe Aniela 2008, 239-282). 현재 왕광이(王廣義), 장샤오강(張曉剛), 위에민쥬(岳敏君), 팡뤄쥬(方力鈞) 등 소위 중국 현대미술의 ‘사대 천왕’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국현대미술의 대표선수들은 모두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번 베이징 답사를 통해 만나고자 하는 자오강(趙剛)의 삶과 예술세계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1979년 중국 후문혁기 중국현대미술의 모태라고 평가되는 싱싱화회에 18살 막내로 들어가 아티스트의 삶을 시작한 이후 20여년 간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며 자신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히게 됩니다. 이후 2006년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끊임없는 자기도전과 실험을 통해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798 예술구를 대표하는 시대(時態)공간과 자오강(趙剛)의 전시를 중심으로 거울과 망치로서의 중국현대미술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중국현대미술사의 맥락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798을 상징하는 인물과 장소인 황루이(黃銳)와 798 시대공간(798 時態空間)을 통해 느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선도해가는 망치의 중국현대미술을 자오강(趙剛)의 『Acquiring Identity』 전시를 통해 엿보고자 합니다.

중국현대미술사의 흐름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중국현대미술사의 흐름을 크게 I) 후 문혁 시기(1976~1984), II) 현대미술의 실험기(1985~1990년대 초), 그리고 III) 중국적 현대미술과 국제화 시기(1990년대 초~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 미술은 독특하게도 내재적인 미술사적 맥락이 아닌 중국의 현대 정치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중국현대미술의 특징임과 동시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박일우 2014, 124-125). 즉 중국 미술사는 매우 방대하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재단되고 형성되어온 소위 현대 중국의 아방가르드 현대 미술은 전체를 대변할 수 없고 실제로도 무대에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1. 후 문혁 시기(1976~1985년)

후 문혁 시기는 1976년 마오쩌둥(毛泽东)의 죽음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고 1985년 ‘85신조미술운동(85’新潮美术运动)’으로 불리는 중국추상미술운동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시기까지를 일컫습니다. 이 시기는 문혁시대를 풍미했던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학으로부터 벗어나 서구 모더니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전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이주현 2010, 163).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소위

4인방이라 불리는 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등이 실각되고, 화궈펑(华国锋)에 이어 등소평(邓小平)의 개혁개방 시대(1978~)가 열리자 ‘북경의 봄’으로 명명되는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사회문화 전반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경의 서단 지역 ‘민주의 벽’에는 시민들의 대자보가 나붙었고, 『今天』, 『北京之春』 등 문학 잡지 등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기존 마오쩌둥 치하 문혁기를 거치며 혹독한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중국 미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오쩌둥의 아내이자 문혁시기 4인방 중 한명이었던 장칭(江青)이 선포한 원칙들을 따라 사회주의 사실주의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해야 했던 중국 미술은 보다 정치성이 감소되고 자유로운 미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술계의 동향은 크게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실주의 화단과 재야미술계를 중심으로 한 서구 모더니즘화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주현 2010, 164). 먼저 사실주의 화단에서는 기존의 소련식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상흔(傷痕) 미술’과 ‘향토회화(鄉土繪畫)’ 등 비판적 사실주의 등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뤼중리(罗中立)의 <아버지>는 이시기 비판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사실주의 역시 과거 문혁기의 경직적인 사실주의 화풍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과 지난 30여년 간 이어진 경직된 예술형식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가운데 서구적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젊은 재야 작가들이 조직한 미술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전시회 등을 열어 자유로운 형식의 실험을 시도함과 동시에 관중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23명의 아마추어 미술가들로 구성된 싱싱화회(星星画会)라는 미술가 단체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모택동으로 표상되던 ‘태양의 시대’, 곧 문화대혁명의 시대는 가고 이름 없이 밤을 밝히는 ‘별들’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미술을 통해 알리고자 했습니다(이주현 2010, 177). 또한 황루이(黄锐), 마더성(马德升) 등이 중심이 되어 1979년 개최된 <제1회 싱싱미전(星星美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호소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예술 운동의 초석으로 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Sullivan 1999, 715), 이후 85신조미술운동으로 본격화되는 중국 아방가르드미술의 길을 연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85신조미술운동 베이징 중국미술관 동쪽 공원의 40m 길이의 철책 난간에 150여 작품을 가지런히 건 <제 1회 싱싱미전²⁾>의 서문은 이 ‘사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²⁾ <제 2회 싱싱미전>은 1980년 8월 싱싱화회가 미술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 그 달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중국미술관 내에서 전시되었으며 27인이 참여하였다.

“...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붓과 조각도로 세계에 참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그림 안에는 각종의 표정이 있으며 우리들의 표정은 각자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 우리는 시간을 절단할 수 없으니,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광명은 함께 교차하며 우리들의 다층적 삶을 구성한다. 곳곳이 살아가는 것, 모든 교훈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2. 현대미술의 실험기(1985년~1990년대 초)

앞서 언급한 상헌회화와 싱싱화회는 자연스럽게 85신조³(新潮) 미술운동(이하 '85운동')으로 이어졌지만 그 정신적·사회적 특징은 사뭇 달랐습니다. '85운동'은 두 번의 정치 운동, 즉 반-정신오염운동(反精神汚染运动, 1982-84)과 반-자산계급자유문화운동(反资产阶级自由文化运动, 1987) 사이에서 나타난 예술운동으로 문화혁명 이전 예술로의 회귀와 정치에 갇힌 예술을 거부하고 서양 현대 예술 수용 및 개성과 창조성 획득을 주장하며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87개의 급진 예술 단체가 발족했으며 2,000여명의 작가들이 각지에서 150여

³ 신조(新潮)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1985년 학자이자 큐레이터인 까오밍루(高铭骞)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 김지연(2013) p. 187. 참고.

차례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을 벌였습니다(권은영 2007, 333).

중국적 아방가르드⁴의 태동이라 불리는 85운동은 오늘날 다양한 중국현대미술의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우르면서 지적 해방 운동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85운동은 항저우 미대나 쓰촨 미대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억압되었던 예술적 자유와 내면의 본성들이 한꺼번에 분출하는 장이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주제들로는 “당대 문화와 서구 문명의 관계 설정, 계급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대한 자성과 비판, 자아와 사회의 상관관계, 대립과 모순 판단력 상실과 허구적 인간가치, 자연과 인본적 구조, ‘질적인 자아와 외피적인 자아’에 대한 고뇌 냉소, 모순, 파괴, 회의, 절망과 더불어 진정한 현대인의 가치를 탐구하는 다양한 주제(최병식 2005)” 등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2010년 현재까지도 중국 현대미술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85운동은 1989년 <89 중국현대미술전(89'中国现代美术展)>으로 절정으로 치닫고 결실을 맺게 되는데, 특별히 항저우 출신 여류작가 샤오루의 “행위 예술”로 인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Dialogue>의 거울에 권총으로 쏘아 부수는 행위예술을

⁴ 레나토 포지올리오(Renato Poggioli)는 아방가르드의 특징을 행동주의, 적대주의, 허무주의, 투쟁주의라는 4가지 요소로 정리하면서 이들 모두가 중국 예술에 접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The theory of the Avant-Garde”(1968), Harvard University press, p 20 참고.

선보였는데, 이는 정경유착을 폭로한 다분히 반체제적 성격의 작품으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전시는 곧 폐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978년 이후 고조되었던 자유 창작활동들에 다시 박해가 가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텐안먼 사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텐안먼 사건 이후 사회에 만연한 상호불신과 반목은 체제비판적 성격이 강한 중국 예술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냉소적 사실주의’와 ‘정치적 팝아트’라는 중국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예술 양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양식의 최초 작품은 앞서 언급한 1989년 <중국현대미술전>에 출품된 왕광이(王廣義)의 <모택동-체크무늬 1호>를 평론가 리시엔팅이 ‘정치 팝 아트’로 명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왕광이를 포함하여 소위 ‘사대 천왕’으로 불리는 장샤오강(張曉剛), 위에민준(岳敏君), 팡뤄쥘(方力鈞)과 이들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쉬빙(徐冰) 등을 통해 중국 뿐 아니라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3. 중국적 현대미술의 실험과 국제화 시기(1990년대 초~현재)

중국 미술계는 1980년대부터 85신조미술운동 등 점차 서양현대 미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국제미술계의 경향에 발맞춘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창미 2017, 95-96).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중국은 국제미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1993년 <제45회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중국현대미술은 본격적으로 국제미술계의 이목을 주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중국적 현대미술의 실험과 국제화 시기가 본격화됩니다. 아울러 그 해 1월에 홍콩에서 열린 <후89중국신예술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 팝아트”와 “냉소적 사실주의” 등 중국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면서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중국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차이귀치양(蔡国强)이 설치작품 <베니스 셔우주위안(收租院)>으로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 대회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중국현대미술은 더 이상 국제미술계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조연이 아닌 극을 이끌어가는 주연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차이귀치양의 작품은 현대미술의 양식적인 면에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존에 세계인들이 중국미술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정치 팝아트”나 “냉소적 사실주의”이 아닌 설치, 행위 등 보다 다양한 장르와 시각으로 전개된 양식을 선보였으며(정창미 2017, 103), 주제 또한 점점 탈정치화되어 점차 개인적이고 독립적 조형언어로서 예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권은영은 중국 현대미술의 문화정체성을 ‘지역성(locality)’과 ‘세계성(globality)’이 공존하는 ‘혼성성(hybridity)’로 이해(권은영 2009, 326)하려 시도합니다. 필자에 따르면, 중국 현대미술은 “전근대와 근대, 현대가 혼재하는 시대적인 혼성과 함께, 동서양 문화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적 혼성, 그리고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혼성적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박일우 또한 미래의 중국 미술은 신수묵화 등 자신의 전통의 재해석·재발견을 시도함과 동시에 다양성 가운데 서구와의 소통을 견지하면서 국제적 조류를 선도해갈 것이라 예측합니다(박일우 2004, 142-143).

오늘날 중국현대미술은 전 세계 미술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술시장정보업체 아트프라이스(Artprice)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미술시장은 48억 달러(한화 약 5조 43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예술품 경매시장이 되었으며, 현재 세계 미술품 판매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제미술계에서 중국 국화(国画)에 대한 재해석 움직임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차오페이(曹菲), 천커(陈可) 등 젊은 신진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황루이(黄锐)와 798 시대(时态)공간

앞서 언급했듯,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800년 고도로서의 자부심과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영감의 원천을 기반으로 중국의 우수한 예술 인재들을 잉태시키는 ‘중국현대미술의 자궁’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베이징 외곽 따산쯔(大山子)에 위치하고 있는 798 예술구(798 艺术区)는 특별히 중국의 과거와 현재, 중국적 전통과 서구의 모더니즘이 만나는 중국현대미술의 복합성과 전위성(박정희 2012, 522)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지난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현대미술의 거울과 망치로서 기능해왔습니다. 한편, 싱싱화회의 핵심인물로서 2002년 이곳에 정착한 황루이(黄锐)는 이 독특한 공간의 건축과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798 예술구를 상징하는 ‘그 사람’과 ‘그 곳’을 통해 중국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그 사람’ - 황루이(黄锐)

황루이(1952년, 베이징 출생)는 중국현대미술 재야계의 큰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후 문혁기 그는 앞서 언급한 왕커핑, 마더성 등과 함께 1979년 조직한 미술단체 싱싱화회를 중심으로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적인 정권에 저항하며 반체제적 성격의 예술 활동을 해오다가 1984년 정부의 박해를 피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1995년에는 입국 금지령이 떨어져 6년간은 임시 귀국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에게 국제적 미술의 흐름을 경험하며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98년까지 주로 설치 작업을, 98년부터는 행위 예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며 중국 권위주의 정부 하의 억압된 자유와 경직성을 폭로하는 사회적·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습니다.

이후 21세기로 접어든 2002년, 재혼한 황루이는 드디어 입국 허가를 얻게 되었고, 귀국 직후 우연한 계기로 친구를 통해 지금의 ‘798 예술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는 798이 주는 공간적 매력과 예술적 역사적 가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일본 도쿄 화랑을 시작으로 여러 예술 단체를 비롯한 예술가들과 친구들에게 798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다시 “제2의 싱싱화회”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798 공장단지를 철거하고 첨단 전자 단지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어 이 공간의 실질적 사용자인 예술가들과 정부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황루이는 어떻게든 이 공간을 보존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쉬용 등을 비롯한 예술가 동료들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투쟁’을 전개해갑니다⁵. 즉 총과 칼을 드는 대신 붓과

⁵ 이 투쟁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은 그가 출판한 〈北京798：再创造的工厂〉

조각칼이라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술적 시위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2004년 지금의 798 예술구를 있게 한 ‘베이징 국제 따샨즈 예술제(北京大山子国际艺术节, DIAF)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회부터 2006년 3회까지 황루이는 총감독으로서 따샨즈 예술제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예술제 외에도 자신의 작품 혹은 각종 언론과 행사를 통해 798을 알리고 국내외 세력들이 연합하여 798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이보연 2008, 65-66). 그 결과 798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2006년 ‘798 공장지대 철거 계획 취소’를 발표하고 이 공간을 ‘문화 창의 산업 구역(文化创意产业区)’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798 예술구는 국제적 유명세를 얻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며 어림잡아 400여개의 국내외 화랑, 대형 미술관, 잡지사, 디자인 사무소, 서점,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며 오늘 날의 798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만 798를 바라보는 정부는 이 예술적 공간을 재빠른 상업화의 길로 유도하였고(이보연 2008, 67), 본래 가난한 예술가들의 작업장이었던 798의 높아진 임대료와 이해관련자들의 압력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떠나게 됩니다. 황루이 또한 최후의 날까지 <공개(公开)>, <차 마시러 가자(吃茶去)> 등 행위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정부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798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베이징 당대 국제 예술제(DIAF)’의 감독을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영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맡아 예술로서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등 예술가로서, 투쟁가로서의 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그 곳’ - 798 시대공간(时态空间)

798 시대공간(798 Space)은 앞서 언급한 황루이의 예술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가장 잘 반영된 공간이자 798 예술구의 ‘어제’와 ‘오늘’을 상징하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798 예술구는 원래 1950년대 구소련의 원조와 동독의 설계로 차오양구에 건설된 국영공장이었습니다. 1951년 건축을 시작해 1957년 완공한 이 공장단지는 동독 건축가에 의해 독일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718 연합공장으로 시작한 이 곳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706, 707, 751, 761, 797, 그리고 798로 단위가 쪼개졌고, 이후 반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전자제품과 군수품, 중공업 단지로 사용되었습니다(김지연 2013, 253). 이후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사회주의의 몰락과 개혁개방 정책으로 군수품 수요가 줄어들자 따산즈(798) 또한 점차 쇠락의 길로 내몰려 몇몇 공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중반부터 작업을 위해 저렴하고 넓은 공간을 모색하던

중앙미술학원의 학생들이 706 공장지대로 모여들어 작업실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2002년 앞서 언급한 황루이, 쉬융, 수이지엔궈(隋建国) 등 핵심 인물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중국의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날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업시대의 증기관과 통풍관, 문혁 시대의 붉은 표어들, 노동자들의 낙서 같은 사회주의 냉전 시대의 유물들은 복합적 공간으로서의 따산즈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798 지구의 공간 특성의 변화는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기존의 지배적 관념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798 예술구의 많은 갤러리들 중 798 예술구의 복합적이고 전위적(Avant-Garde)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798 시태공간입니다. 798 예술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2002년 일본에서 막 귀국한 황루이와 쉬융(徐勇)이 오픈했으며, 798 예술구를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798(再造 798)’ 운동이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또한, 오늘날 해마다 열리는 798 페스티벌의 본부로 사용되어 798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김지연 2013, 257). 천장고가 9미터에 이르는 이 독일 바우하우스 풍의 건물은 드높은 아치형 천장이 매우 인상적이며, 천장과 벽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위대한 마오 주석 만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등의 빛바랜 구호는 그 어떤 다른 798 예술구의

장소보다 중국현대미술이 가지는 복합성과 전위성의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 옛 군수공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798 예술구

내일: 자오강(赵刚): 『Acquiring Identity』

자오강(赵刚)은 중국현대미술의 복합성과 혼성성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1961년생인 자오강은 1970년대 후반 앞서 언급한 후문혁 시기 중국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싱싱화회에 18살의 나이로 입단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1979년 <제1회 싱싱미전>과 1980년 <제2회 싱싱미전> 등 중국현대미술사의 기념비적인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1980년대 많은 싱싱화회 소속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 정부의 거세지는 감시와 탄압을 피해 해외로 나가 유학생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2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가는데, 이후 2006년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동양과 서양,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적 전통과 서구적 모더니즘 사이에서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의 영감의 원천인 수도 베이징에서 태어나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 세계 속에서 공부해 온 자오강에게 있어 예술적 정체성 확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술적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과도기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국제미술시장에서 이름을 떨치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초까지 798 예술구 롱마치스페이스(Long March Space) 갤러리와 타임존 8 카페에서 진행되었던 그의 전시 『Acquiring Identity』는 자오강이라는 인물의 삶과 예술 세계가 보여주는 복합성과 혼성성(hybridity), 그리고 전시 타이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 그의 작가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상술한대로, 중국현대 미술은 ‘전근대와 근대, 현대가 혼재하는 시대적인 혼성, 동서양 문화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적 혼성, 그리고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구연하는 혼성적 문화정체성’을 가지며, 국제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서구 예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자오강이라는 작가의 개인적 이력과 삶,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하는 그의 작품세계는 이러한 과도기적 중국현대미술의 복합성과 혼성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의 예술적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는 1980년대를 풍미했던 정치 팝아트부터 풍경화, 인물화, 누드화, 회화에 이르기까지 이 작가의 주력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식과 대상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었고, 이 뒤죽박죽 속을 알 수 없는 다양성과 모호함이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 다소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자오강의 작품들

또한 갤러리측의 설명에 따르면 자오강의 작품들은 자유롭게 뒤섞인 형체와 모습 속에서 중국 고유의 전통과 서구 인상주의 기법을 혼합한 것인데, 작가는 이를 통해 한 사회와 역사의 불가항력적인 추세 속에 간혀버린 인간의 무력함과 슬픈 처지를 예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는 여성의

누드 내지 세미 누드화 작품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과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여성의 나체 또는 나체의 여성이 대나무 숲에 숨어있는 모습 등을 통해 커다란 시대의 조류 속에 떠밀리는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취약성을 그리려 시도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목이 잘린 스탈린을 그린 작품 또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 때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불행한 종말을 그리며 인생의 덧없음과 취약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작가는 이러한 작품들의 인물의 모습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보다 큰 사회구조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당뇨병(자오강)

결론적으로 망치의 중국현대미술은 정체성의 혼란의 과도기적 시기와 서구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일의 국제 무대 가운데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중국예술 특유의 정치사적 맥락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지만, 그 또한 국제무대 가운데 중국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과 매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현대미술은 거울과 망치로서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기억에 근거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내일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황루이와 798 예술구가 적극적 의미의 중국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본격적으로 서구 세계의 미술사적 흐름을 따라가고 배우면서 국제화를 시도했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의 중국현대미술은 명실상부 국제미술계를 선도해가는 대표주자로서 국내외 정치사회적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 자오강 전시회장 앞에서 사랑방 학우들과 함께

10기 사랑방과 베이징 답사를 마치며

베이징 답사를 마지막으로 사랑방 10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대학원 공지를 통해 합류하게 된 사랑방은 분명 쉽지 않았던 도전이었지만 참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한계에 봉착하면 때로는 어떤 특정한 과거의 추억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랑방 학우들과의 만남과 추억이야말로 대학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방 학우들과 베이징 답사를 마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크게 3 가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방 공부를 통해 가장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문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통찰력을 주신 하영선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의 모습들 속에서 일종의 진정성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 기억과 교훈이 분명 내일에 대한 방향성과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스터디 모임보다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는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실존적 작업이어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과 학우들이

진정성과 절박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작업이 ‘나’와 ‘우리’의 실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랑방 공부를 통해 스스로의 무식함과 부족함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갈 길이 멀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좌절과 낙심을 주었다기보다는(물론 때로는 그러기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를 다시 자극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를 즐겁게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사랑방이 끝난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하다고 느낀 만큼 더욱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랑방에서 선생님과 다른 학우들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사랑의 국제정치학’을 실천해나가고 싶습니다. 꿈과 삶과 함은 모든 요소들이 균형 있게 같이 갈 때 비로소 운동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베이징 답사에 대해 간략히 느낀 점을 간략하게 나누자면, 무엇보다 2 박 3 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마음으로 존경하는 하영선 선생님,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최수이 선생님, 그리고 7명의 훌륭한 학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사랑방

시간이 지식적인 교류와 학습이 주였다고 한다면, 이번 베이징 답사의 시간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지식을 공유할 뿐 아니라 3일 동안 온전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삶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어서 지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더 친밀해 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98 예술구 파트를 준비하면서 생소한 분야라 걱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중국 현대미술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매력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만남과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추억과 배움에 근거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방 학우들이라는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신 하영선 선생님, 백혜영 실장님, 최수이 선생님,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함께 수고한 사랑방 학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10기 마지막 보고서를 마치고 싶습니다. 아듀 10기 사랑방!



참고문헌

- 김재준, 김성언. 2013. <미술품 옥션과 현대 중국미술 시장>. 문화정책논총 27 권 2 호, p. 101-119
- 김지연. 2013. 『중국 현대미술의 얼굴들』. 서울: 두성북스
- 김태만. 2012. <798 예술촌, 도시의 흔적과 기억의 공간>. 현대중국연구 13 권 2 호, p. 121-156
- 권은영. 2009. <중국 현대미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미술사적 고찰: 1978 년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와 미술의 관계>. 미술사학보 Vol.33, p.325-357
- 뤼평. 2013. 『20 세기 중국미술사』. 서울: 한길아트
- 박일우. 2014. <중국 현대미술의 동향과 과제>. 국제학논총 22 권 p.123-146
- 박정희. 2012. <공간재생과 주체갈등- 베이징 따산즈 798 예술구>, 중국인문과학, Vol.51, p. 517-538
- 신나경. 2011.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동양예술의 의미재고: 전통예술의 매체융합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17 권 17 호, p.111-114

이보연. 2008. 『이슈, 중국 현대 미술: 찬란한 도전을 선택한 중국 예술가 12 인의 이야기』. 서울: 시공사

이종은. 2010. <상징으로서의 예술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제 19 집 제 3 호, p. 239-263

이주현. 2010. <後文革시대(1977~1984)의 중국현대미술: 星星画會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통권, Vol 24, p.163- 192

조영남. 2012. 『용과 춤을 추자』. 서울: 민음사

정창미. 2012. <중국 ‘정치팝아트’의 형성과 전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 23 집 2012 상반기, p. 148-169

정창미. 2017. <중국현대미술의 베니스비엔날레 참여과정 연구: 1993-2013 년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23 권, p.92-125

최병식. 2005. <개혁개방 이후 중국현대미술의 변화와 주요경향-청년세대들의 실험과 예술세계>. 동양예술 8 집, p.8

- 최병식. 2007. <중국 ‘4 大天王’작가들의 비판사상과 미술사적 의미>. 동양예술 12 호, p.227-259
- 한혜경. 2010. 『꿈꾸는 미술공장, 베이징 일기』. 서울: 세미콜론
- Jaffe, Aniela 저, 이부영 외 역. 2008, <시각예술에 나타난 상징성> Jung, C.G 편.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239-282
- Huang, W. and Kaixuan C. 2010. “798, Inside China’s Art Zone, South San Francisco”, CA: Long River Press.
- Julia F. Andrews and Kuiyi Shen. 2012. <The Art of Modern China>.
- Jennifer Currier. 2008. “Art and Power in the New China: An Exploration of Beijing’s 798 District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Urbanism”. The Town Planning Review, Vol. 79, No. 2/3, p.237-265
- Jonathan Goodman. 2015. “Huang Rui: Painting with Words”. Yishu: Journal of Contemporary Chinese Art, Vol. 14 Issue 6, p.58-65
- Lu Peng. 2013. “Fragmented Reality: Contemporary Art in 21st-Century China”

Michael Sullivan. 1996. "Art and Artists of Twentie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98 예술구 공식 홈페이지: <http://www.798district.com/>

베이징도쿄예술프로젝트(BTAP)공식홈페이지: <http://www.tokyo-gallery.com/btap/>

울렌스 현대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http://ucca.org.cn/en/>

룽 마치 스페이스 갤러리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ngmarhspace.com/en/>

페이스 갤러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acegallery.com/>

스타갤러리 공식 홈페이지: <http://www.stargallery.cn/>

아이웨이웨이 홈페이지: <http://www.aiweiwei.com/>

차오 페이 홈페이지: <http://www.caofei.com/>

최윤정. "Special: 중국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힘," Noblesse,
http://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_detail.php?no=5170(검색일: 5월 20일)

Christopher Beam. “Beyond Ai Weiwei: How China’s Artists Handle Politics (or Avoid Them),”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news/news-desk/ai-weiwei-problem-political-art-china>

박영대. “중국 예술품 경매시장에서도 우뚝!,” 동아일보 중국의 창, <http://china.donga.com/Main/3/all/43/837798/1>
(검색일: 5 월 20 일)

画家赵刚：身份的焦虑，The International Art Magazine of Contemporary China, <http://www.leapleapleap.com/2014/03/%E7%94%BB%E5%AE%B6%E8%B5%B5%E5%88%9A%EF%BC%9A%E8%BA%AB%E4%BB%BD%E7%9A%84%E7%84%A6%E8%99%91/?lang=zh-hans> (검색일: 6 월 19 일)

赵刚：绘画于我而言是一种别样的生活载体, Art Power
http://www.sohu.com/a/213412602_826085(검색일: 6 월 19 일)

赵刚：我不愿意成为任何一种身份 或变成身份的象征, Art. IFeng
<http://art.ifeng.com/2018/0517/3422001.shtml> (검색일: 6 월 25 일)

赵刚 CV, https://www.artsy.net/artist/zhao-gang?page=1&sort=-partner_updated_at (검색일: 6 월 25 일)